[長篇 敍事詩]

巴人 金東煥 作

昇天하는 靑春

京城 新文學史 發行

1925. 12. 25

昇 天 하 는　青 春

目　次

[一]　태양을 등진 무리 ····· 1

[二]　二年前 ····· 25

[三]　눈우에 오는 봄 ····· 42

[四]　血祭場의 노래 ····· 61

[五]　殉　情 ····· 86

[六]　피리부는 가을 ····· 109

[七]　昇天하는 青春 ····· 129

[一] 태양을 등진무리

一

(1)

소낙비 퍼붓는 한밤중에
남의집 색시를 얽어가는 장사패가치
가을은 이한밤에 田園에달녀드러
한여름의 영화에 불질너 노코는
자최조차 고요히가는 한해를 거더안고서
멀니 멀니 강남쌍으로 내닷는다
마치 남편을 파뭇고 도라지는 과부의 거름과가치
이리빗틀 저리빗틀 애끗는노래에 狂亂하면서
더구나 그노래가락이 한번 젊은이가슴에 부드치면
깨고리 나타난 뒤 수양버들가지가치 것잡을것업서 울건만

(2)

또갈퀴쥔 그손길이 한번 숩풀에 부드치면
兵燹에 걸닌 마을가치 모든 나무닙새가 진저리치고 쎄구을건만

그쏀인가 바다가에 목욕하던 여름구름조차 쒸여이러나
하늘한읏에 파뭇긴 山岳을 분주히 파 내노코는
十二星座에 참배가렴인가, 힌구름 속에 사라저버리는데
가을은 이줄이나 알고가는가 아-----

이제는 凶豊을 가리던 머슴애 便싸홈조차 슨어저
마을이 한읏 불슨것가치 적막해젓는데
외로운 낫달이 깁흔하늘속에 써
地上의 온갓 갓난 목숨과 수획 헤고안젓다
아하, 그래도 역시 가을은본체만체 새벽이슬을밟고싸홈터로나가는
三軍의쎄와도가치 기츰한번업시 멀니도 가버리누나

二

(3)

아하, 가을이간다 이가을이 읏내 가버린다
赤道밋 南洋쌍 土人들창쥔손등에 잘도숫검칠하던 五六月太陽이
어느새「빠나나」를 다 물키고는 제주도라 한나산에
귤겁지에 연지칣가지 하고잇더니

강북으로 나라드는 기럭소리에 놀나
그만 뒤도 안도라보고 멀니멀니다라나버린다
이제는 풀막집에서 청포두부에
컬컬히 배튼 막걸네로 목을 축이고서
기나긴 삼복절을 쑴속에 보내든 학발로인들도
태극선을 집엇부리고 목침을 안고서
재두덜거리며 양지ㅅ족을차저고양이에압서 어슬넝어슬넝 기어든다
머슴아이조차 휘파람맛에 갈퀴를닛고서
저녁해ㅅ살을 밟으며 다시 뒷동산으로오르고
움물가에 갓난애기 발등에 써러지는 나무닙무게에

(4)

발쌜생각도업시 그저 머리를 숙이고잇다.
천지가 왼통 哀愁에 잠겨잇는데 이 한가을은 면류관을 쓴 예수이던가
하늘을 부르며 구름을타고 멀니로도 가버리누노나

三

팔월이라 추석절엔 님의 산소 풀도 푸르러
잔채ㅅ날 닙으시던 도포 자락과도 갓더니
이젠느 금잔듸 노-란금잔듸
복송아곳 써러진뒤 무릉도원가치
쓸쓸하기도한 금잔듸 벌, 비석에도 마른익씨 쎄
저녁까치 빈산을울닐대는 亡靈이 우는것갓해 더욱도 시산해라
그러치안어도 마른보치쏘각이 이리 저리데굴너
급한길손의 막대씃을 함부로막는데
살마즌 멧도야지 지나간것가튼 이동산이

(5)

가을이 간 자최란다, 아니가던 못하겟던가 애씃는가을이어

이제는 해도 쌀나지고 밤도 석자나 더 길어저
마루씃에 너머지는 수양버들아치
낫날가튼 初更거더안고 움물속에 기여든다
이달비체 쌍금박 업허 노흔것가튼

다드미질 시골색시의 젓꼭지도
어느새에 벌서 소리업시 저고리기슭에 염겨지고
숙종대왕 야순다니던 철이던가
초저녁 대문조차 달을막으며 구지구지 다처 젓다

논에도 가을이라, 논드렁 고인물이
누나의 後行꾼가치 볼일다보앗다 손길을 툭툭털며
「얼너러네, 상사듸」를 부르면서

(6)

써러진 베폭을 쒸여가지고
멀니 칠셩단모양으로 가려논 벼가리에 열번스무번절하며다라난다
그서슬에촐촐촐흐르는 산골물이 맛장단치는데
더구나 지난밤 기러기쎄에 개평을쎄인
가투리 대가리된 벼가리 밋친녀가치 너우너울 춤추는데
또 그엽흘 지나는 추수실이수레
알낙암소의 색기부르는「엄마--」소리를 전하고가는데
가을은 이러케 장단덜치고 노는잔채집갓지만 역시그속에는눈물이고엿단다

아하, 가을이간다「알프산」넘는 나파륜 군사가치
다시 도라도 못질 이가을이
일만사람의 가슴을 못견대게 툭 처노코는
시침만 쎄고 제갈데로 가버린다, 淫奔한창년갓치

(7)

이서래에만흔쯧잇는사내는 열번도더 칼자루를 만지며
또떳백의 젊은색시는 버섯광주리를 발로차며 늑겨울건만, 기을은이줄이나알고 가는가?

아하, 가을도 이러케 시산하다거던
가을의 한밤이야 더 엇더랴
서리지고 외나무가지 바람에 안겨우는 그한밤이야

가을밤도 이러케 시산하다거든
서울의 시구문밧 가을밤은 더 엇더랴
누구집 귀공자가 이러케도 만히와 쌍속에 뭇겻는가
어느족보의 아들딸들이 이리도 만히 차저와 누엇는가
십리도 넘게 물결지어 넘은
수백의 靑塚이어, 수천의 돌 비석이어

(8)

저쪽 안개낀 水鐵里까지라니 수만인가

몃해를두고 송장의 집물을싸라먹고 자라난 버레소리 긔운찬데

백골이 石灰質로날려 쌍을 砂質黃土로 만든다, 참외북노을셈가

가을 봄철차저 샤리우는 비바람은

금년도 鬼哭에장단맛칠텐데

또주먹가튼 古塚을 안고잇는 저사람들 집채를 쓰러버릴텐데

대체 이 무덤엔, 백주 청명한때에도

해ㅅ발이 비처 본적잇는가, 陰酸한 공긔는 그조차 이심난다

그래도 무얼먹고 지내길내

이만흔 서로 물고쯧던 무리들이 한배갈으고 나온 친형데가치

억개를 가즈런히 손목을맛대고 화목하게 지내는가

모다 아모것도 가리운것업시 몸을 좍--- 벗은채

색시고 총각이고 어린애자란이모다 사랑하는사이가치

너분다리 걸치고서 단 꿈꾸고잇는가?

(9)

그러노라니몃번 인간을 回憶고 몃번 살냄새를 그립어 햇든가

무덤이어, 冥府여, 저세상사람들 사는 저자여

어대서부터 인간이며 어대부터 하늘속인가

幽明이 相克타니 무르길도 바이업서라

아하, 밤의 屍口門밧기여 어둠속에 뭇긴 亡靈의 住宅이어

쑬벌통가치 쌕백히 드려션 흙주먹들이여

그대들은 아모말도업시 코마루를 드뒤고지나가는이가 을보앗는가

가슴우로 막대소리내며 지나는 이 가을의 쏠을!

인간들은 가는 청춘 붓잡고 애닯어우는데

그대는 둥허리 쌔가 모다 부서지는 이거름을밧고도 가만히잇는가

응당가을은 귀신들하소연울 드럿스련만

그리나 나도아노라 이 亡靈들도 쎄울음울며

殺戮의 가을을 季節의暴君을, 춤뱃고 쏘첫슬 것을

(10)

여기는 모다 비엿다
모든 빗갈도 모든소리도 모다 텡텡비엿다
히고 검고 쌀갓코 알낙달낙한 모든 色彩도
구어낸 독그릇모양으로 모다 싸매젓고
라라라, 리리리, 도레미, 나늬나하는 모든 音響도
열대속 피아노鍵盤가치 모다 緘默하고잇다
이러케 벙어리와 소경만 把守보는곳엔
하늘은 숨막힐듯한 神秘를가저다감추느니
이리하야 세상은 점점 점 밋업는 밤바다로 잠겨친다
이제는 독개비나는 넷 무덤도 그무덤을싸고 도는 먼산도 물도
아모것도 모다 晦暝한 가을이란 世代에 쓰을녀 점점점 밤바다로 잠겨진다

(11)

이러케 깜깜한 밤중에
물결을 처넘은 저 십리 白骨塚을 바라보노라면
춤 한번 삼키지안코 그 무덤만 가만히바라보노라면
금시에 관 쑥경을뜻고 수천 수백의 亡靈들이
줄광대 모양으로 가달춤추며 제각금 쒸여나와
코키리 파먹고난것가튼제무덤 쏙대기에 올나서서
무어라고 두팔을 저으며 인간세상을 향해 부르는듯
그소리 마치「여보게 이리옴세!」하는듯
구멍이 숭숭쑬닌 크다란 그 頭盖骨이
남산 봉화택가치 쑥내밀며 너울 너울 춤치워질째
더구나 물리학표본가튼 척수골에 사지가 턱턱드러붓고
머리에도 바람에날니는 자도넘는 가락이 씨워질째
금박에 목숨부튼것가치 엉기 엉기 기어나와 손을 마조잡을것가튼 그 모양을보고는

(12)

등골로 옷싹 소름이씨침을쌔닷느니
더구나 저히씨리조와라 히 히 히하고 웃는 그소리듯고는
또 청상과부의 哀哭가튼「우후후, 오호호!」하는소리듯고는

그러다가 그도 부족타고 입에서 쌀간 선지피를 내쌈으며
「엣다, 이자식들아 이게나 바더먹어라!」하고 눈갈흘길째는
아하, 이한몸이 그대로 쌍속에 써저 드러가는것가트니

이러케 밤낫 咀呪하는 무리속엔
능라주이에 밤마다 긔생집노리에 잘못 인삼녹용먹고 체해죽은군대감 짓쓰레기 영혼이
남편에 소박마저 쌀자식 청루에 팔고 울다가 울다가 소나무에 목매죽은 로파령혼이
날째부터 물지게꾼으로 그립다 그립다 鰒魚알 주어먹고 객사한 北靑물장사 령혼이

(13)

그밧게 도 종신징역으로 죽은죄수의 긔생삼패의 행남어멈의 모든 령혼이
뭉게 뭉게 수증긔가치 써돌며아닌다 미련과 원망을품은채
그래도 이러케 얌전하게 줄처 뭇겻슬째는
나 차례던가 키 차례던가 그도 아니라면 저승은 자리차례던가

가지고왓슬 極樂과 天堂은 다 어느심해산골에 너코 예왓는가

더구나오늘밤가치 별비치 우스--러 빗기는때는
그속에서 누가 이러나 「유--세차」하고 祝文을 외우는 듯
그리고 이내 썩 쌔리는소리와 祭酒 짜르는 소리나며
마즈막「상향-」하는소리도 들니는것갓다, 그러면
모든 亡靈들은 일시에 소리내어머리쪼스며 우는듯도
그리다가 이판에 기다란 쇠막대집흔 어느精靈이
돌연 나타난 모--든 관쑥겅을 쎄처버리고서

(14)

「이귀신들아!」하고 소리치면
금시에 쥐죽은 나라가치 잠잠하여지며 모다「예---」하고 대답할듯
그러면 그정령은 한층 더놉흔 소리를내여
「다시 이세상에 나오고시푼놈은 내뒤를짜르라!」웨치면
모다「나두! 나두!」하고 압흘다토아 몰녀들려니
간혹 더러는「망할것들! 세상에 또 무엇하려!」하고 비웃슬너석도 잇겟지만

더구나더러는 아직조곰만 생각하고서 하고 관쑥경을 도로쓰고 눕는놈도 잇스련만

아하, 이러케 시산한가을 에안겨우는 人世에무엇이잇서 백골까지 골니게하는가……

七

이러케도 처량하게 수만 망령들이 哭하는 밤

달은 빗도 안보이고 삼태성만 눈깜박이는 밤

(15)

천지는 모다 죽은 듯 고요한 밤

장안으로 터지는 전차소리도 싹 끈겻는밤

어대서 금시에 벌네하나라도 등을펴면 온 천지가모다 뒤집힐것 가튼밤

누가 기츰한번지어도 팔천제자 흐트러지듯 인간들이 우시시 갈나지고말것가튼 밤

하늘에 쓴 별싸락이 눈깜박만하여도 노아의 홍수가튼 큰동란이 터질것가튼밤

바로 이밤에, 바로 이고요한밤중에

불시에 엇던 그림자하나 鬼火가치 저쪽 무덤아래로 나타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무덤을향해 달아온다
그는 갓금 제발자최에 깜작 깜작 놀나면서
무덤과 무덤사이에 타박타박하는 마즈막 寂滅의 音響을 전해 노흐면서급히도달아온다

(16)

이는 妖精인가 巫女--ㄴ가 스피릿트--ㄴ가
남덜은 땅속에누어 저 세상을 찻는다는데 이는 사라서 차즈럼인가
돌연한 闖入者에 무덤를지키던 나무와 땅덩이는 몹시도 놀내지면서 그의일거일동을 지키고만잇다

벌은, 으스러한 사당 제삿날촛불가튼 별은
그를 生物이라 빗추엇네 그러다가 또다시 녀자라고 알녓네
녀자! 녀자! 웬녀자! 웬 알수업는 녀자인가?
그는 이슬저진 치마자락을
아직도 서당집노훈장가치 축문외우기에 짯댁짯댁하고 안젓는갈대이마를스치며
몬지도날세라 귀도람이우름소리각금 잘나노으며

자국자국 숨을죽이며 달녀온다
고요한 공긔는그의 물결놉흔가슴의 動悸를전하는데

(17)

그의발작곡은 점점점 쌀너젓다
봄나비가치 저ㅅ가락으로 집허도 씌울것가튼 그가벼운 몸집이
나무패를 각금 뭇지르며 급히도다라온다
크나큰 밀물을 피하는 방게가치도
멀니서 보앗던들 귀신들이 춤춤이라 안햇스리

그는 분주히 이굽이 저굽이돌고 또몃무덤을넘더니
아마 엽초 한대는 피엇스리라 할때에
엇던 백양나무 아래와 웃둑섣다
그리면서 일생두고 찻던곳을 차즌드시후---하고 길게 단숨을빼면서
한편으로는 안정못하는 눈살을 사방에펼치면서
마치 산양군총알에 마즌 도망해온 노루색기가치
팔락 팔락 가슴의 숨결을 몹시 치면서
별은, 새벽이채못가서 이즈러질것가튼 별은

(18)

그를 쌍에박은 돌부처가치 비최엇다

八

얼마를 지낫다---
바람이 다시 그녀자의 머리칼을 산산히 푸러헛칠째
그는 깜작 정신이난듯 몸짓을 푸드득썰면서
이내 치마자락에무든 이슬을 툭툭썰고 옷깃을바로잡더니
안고왓던 보꾸렘이를고요히 쌍에 내러놋는다
무엇인가? 밤길女人에게 무엇일가?
그는정신업시 내려논 보꾸렘이를 치어다보다가
긔도를 드리는 시늉을하면서
입을낫팔낫팔거리며 히멀굼한나츨 하늘에올니쏜다
달은 그우에흘너 石膏彫刻가치 차듸차게 비최이는데
그러다가 그는또다시 發作的으로 불시에 흑!하고늣기더니
그제부터는 사지를 포도도 썰면서 애처럽게운다

(19)

그 嗚咽하는소리 밤하늘에 울녀

몹시 구슯푸게 몹시 쑤렷하게 들렷다.

그는 오랫동안 치마자락을 썩구로쓰고 몸무림치더니
모기소리만한「에그, 하느님 맙소사!」한마듸를내치고는
이내 失神한사람가치 몸을 뒤 백양나무에 쑤린다
죽어져라 바위에 뒷골을 쏫는 狂女와가치
천지는 더한층 고요하여진다 모든동맥이 다 슨어지면서
죽음의나라로 寂滅의나라로 내닷는다
뒤에는 련해 발을 구르며 애끗나게 우는그녀인의 소리와
天日을달나고 애원하는 亡靈들의 呼哭소리만들니는데

멀니 새벽바람이 보치쏘각을 쏘날닐때
그는겨우 눈물에부은 나츨드더니

(20)

얼마를 먼----히 사적만 도라다본다
수천수백의 戰地로향하는 군인쎄가치 너무도만케 올니
소슨백골머리를 보고는
익이막히는드시 아모말업시 먼----히 바라다섯기만한다
그리다가쏘「아모래도 가엽구나 에그!」하면서

쌍바닥에 풀석주저 안저 앗가보쑬렘이를 만진다
白銀길가튼 여윈손ㅅ락이 그에다칠째
손길은 感電된것가치 포도도썬다
그는 모든결심을 하고난드시
이를 오도독 힘스레갈더니 이내 열손ㅅ락으로 쌍을 파기시작한다
처음은 잔디가 쯧기고 그다음은 돌멩이, 나무째기, 쇠찌적
곰발톱가치도 잘도쑤지는 그의두손이 번개치듯 쌍에오르내릴째
써---먼 진흙은 그근방에 적은뫼를 일우엇다
ㅈ얼마쑤질째 그 자리엔 네모난 구덩하나가 생기고

(21)

습긔잇는 쌍속으론 썩은 흙냄새가 코를 툭 지르는데
구덩으론 大地의손이 금시에 나와 ㅅ으려드릴듯
女人의손ㅅ락엔 피가흐른다 피가흙을물어 손이 진흙투성이된다

九

그는 다시 꼬깃꼬깃 싸노흔 보쑤렘이를푼다
저로도 엇던 두러운광경을 그리는드시 나치 샛팔해지면서
처음엔 베로싸고 그다음은 헌겁으로 또그다음은 하얀 솜으로 감고 감고 또감은 것을 풀자
맨내종에는 누----런 油紙가보인다
그는 쎌가 말가 망설이다가
하늘에 애원하는 듯 다시 눈물저진눈으로 북두칠성을 절하다가
될대로 되라드시 유지를 탁 쏀다
앗! 그로서는 어린 갓난죽은애 시체가
女人을 바라보고웃는다! 별쓴하늘을 치어다보고웃는다!

(22)

그서슬에 그는 저절노 놀나「에그!」한마듸하고는 뒤ㅅ걸음친다
젓빗가튼 말낙말낙한 나비츤 죽은지얼마안되는 듯
눈은 그린드시 고요히감기고 입살은 파래저 금시에 엄마를 부를듯

아직도 몸에선 体溫이잇는듯 후눅후눅한데
아하, 가슴우에 곱게 접어노은조고만 두손길이여
금시에 햇작우슬것가튼 둥그스럼한 두볼이여
웨이리로 왓는가? 죄업고 흠업는것이여 웨이리로 오게 됏는가?!

女人은 그만 저도모르게 달녀드러
嬰兒의 시체를 껴안고서 제쌈을 부서저라 부비면서
「에그, 가엽서라, 불상해라 어미를 욕해다고!」 또
「너를보내는어미는 이제는 어느별을 헤고잇스랴니?」 하면서
점점 몸을이루어 죽은시체를 배암이가치 긔운잇게 얼사안으면서, 제가슴에다----

(23)

十

「빈벌에던지면 주우린수리개 두렵다네
쌍속에파뭇어도 둑겁이찻는 사무새 근심되지만

그러타고 내가슴은 더욱 도차고무섭구나
아하, 엇저나 낫다가 갈곳좃차 업시사라지는 어린짤이여
너를 보내는 어미는일생두고 수리개차즐가?사무새말닐가?」
얼마를울다가 그는 모든 것이 엇절수업다는드시
울음을 쓰치고 앗가와가치다시쓴다 송장에 유지를솜을 마치 동지섯달눈사람가치
그러더니 고요히안어다 앗가 파노흔 구덩에 집어넛는다
地心밧겐 그의집채가 업다는드시----
또 그 地心이란 수억만길의 밋바닥에 써러지고마는드시
이내 검은흙은 눈물을 밧으며 외로운장셰을 지낸다
어대서 亡靈들이「유--세차」하고 부르는소리또들닌다 별빗도 이갓은어린애를 안어주는 白骨을 비최는데

(24)

女人은 失神한것처럼 둥두렷케된 무덤을 물끄럼히 치어다보더니
마즈막 한숨을 휘---쉬고는 손을툭툭 썰고이러선다

그러더니 그는 돌연 제비나름하여 내닷는다
불이야 불이야하고 앗가 그길로, 그한길로, 無限으로

쌔처간것가튼 그죽음의 길로-鬼火불모양으로 번득이면서
넙필거리는 치마자락이 저쪽에 보일낙 말낙 할쌔
무엇을 앗기는듯 눈살과 蒼白한나츨 기웃기웃하더니
그만 영영 사라저버린다
영원히 아조 이인생으로 부터사라지드시

그 순간이 지내자

(25)

모든 무덤의 파수병들은--- 白揚과 木碑와 짤대와 또花草들은
참아오던 한숨을 휘---내쉬며 도라눕는다

十一

바로 그쌔이엇다 저쪽 산구비로
더벙머리한 엇던 키큰 청년하나
물에빠진 장님가치 헷손질을하며 몸을날려
분주히도 이곳으로 달너온다 앗가 女人이 뭉기던곳으로
그서슬에 亡靈들은 또다시 두개골은 쎄죽거리며 쏘우름운다
그는 퍽 익숙한것가치 용하게 무덤쏙뒤만 성큼성큼 쒸

다니며쌀니도 달녀온다

한밤중에 鬼塚을차저 오는자여, 송도말년의 불가살인가
陰風에인적를뭇으며 白骨을도적하려 무덤에온자인가
요지음흔한 부자집싸님 먹이려 脊髓골 쏩으러옴인가

(26)

옷별업서 屍衣를, 月子업서 남의집 처녀머리태를베이려
그도아니라면 사람의고기가그립어 女性의 고기가그립어 그로차저옴인가

太陽을 등지고 송장들과 벗하여 사는무리여
야반삼경 귀뚜람이조차 잠드럿는데 골패두려차저왓는가
갓죽은 葬式을보고서 제사썩 어더먹으러왓는가
그대는 밤바다 이곳에차저와 무덤에 코를박고는
긴---한밤을 달게지나다가 동트기마하면
성가진드시 낫츨씽그리며 이슬을툭툭썰고 산골로다라나는 世紀末의野人이던가?

그는 단숨에 앗가 女人의 섯든자리에 쒸여오더니

벌서 알고온것처럼 갓무든 무덤을판다

(27)

맷도야지가치 살스럽게도 地靈을울니면서

얼마 뒤 그는 그 보쑤렘이 차저안고서
묵묵히 서고잇더니
다시 쏜살가치 내닷는다
앗가 女人이사라지던 향방을향해
쿵쿵거리는 그발자최 먼산을 울닐째
掠奪者를 쏫는 갈바람이 그뒤를 즈치는데

墓地는 번개가튼이일에 무어라부르짓고는
다시 끗업는 寂滅에도라간다 치썰니게도 고요하게
바람은 아직도 쇄쇄하고 불어넘치는데-----

【二】 二 年 前

一

(29)

『짜짜짜---또 찌 또---』
길게 꼬리를쏩는 유량한 나팔소리
멀니 새벽공긔를 쑬고 우렁차게 울려들닐때
여러슨 쓰고자던 담요를 집어쌔리고 분주히 마당으로 내뛴다
꼽작이안즌 눈살을분주히 주먹으로쓰드며
겨우 그 참혹한 惡夢에셔피한 것을 다향으로역이면서
마당에는벌서 총스테 칼 꼬즌 여러병정들이
억개에 찬 갈 바람을 껴 안고서
무덱 무덱 모여서『人員檢査簿』를 뒤적거린다

조곰잇다가 또 피토하는것가튼 두 번재 나팔소리들니자

(30)

馬糧草에 코를 트러막고자던 상투쟁이도
캑캑하고우는 어린애안은 婦女子들도 동치마바람에

마치 포수에놀낸 토기삭기모양으로 썽충 썽충뛰나온다
그래서이수백 수천의 쪼기여다니는무리가
둘 셋 열 스물이모여서자 쌈냄새 피썩는냄새
맑은하늘大氣를 몹시도 흐트러놋는다
그래도 아직 채 못이리난자 잇는지 안에선
『에익 이자식!』하고깨우는 班長의 날카로운소리 련해들니는데
여러슨 그소리날때마다 새삼스러히 몸짓을하며
어느 두러운날을기대리듯 얼골숙인채 묵묵히서잇다

그러다가 저리로 幕僚를다린 靑年士官이
구두소리 호화롭게 點檢으로나오면
울안에몰니는 양떼가튼 이무리들은

(31)

네렬로 발을마초아선다 화숭총시대의 어느나라 군사모양으로

화약꼬겻헤모여선 第一營에선 그때
『긔착! 번호!』하는 송곳질하는듯한 샢족한 구령소리터지며
이내한낫! 둘!하는 爆竹가튼 소리뒤를 닛는다

그래서 열 스물도 더지나 삼백!하고 겨우끗나게되면
士官의 낫츤 또 씽그러지며 다싯!하고 호령한다
한두놈의 도망한자 잇다고 융얼거리면서----
여러슨 또다시 고사축모양으로 맥업시하나둘을부른다
이리하야 세번네번 되푸리될째
여럿은 몽혼약에취한듯 긔운업서 예예하고 헷대답만하며 番兵들도脫營者에 긔가 앗득하야 련해 채찍을돌닐째
그째뒤로서『여기잇다!』하는 소리 벼락가치나며
엇던병정하나 골싸맨 로동자를 쓰을고고나온다

(32)

여러슨, 이천명도넘는 여러슨 일제히 그리로 눈을돌니며
『저자식 무얼하누』하고 惡罵하는 눈살을보낸다
실상 그하나째문에 큰 고상을 당할번햇스니까
그래도 이모든 羣衆의 焦燥와 憎惡과는 아모관계업다는듯시 그는 툭명스럽게
『골에 피가 나서그랫지 그자식덜! 쎗쎗쎄!』한다
그러자또다시하나둘하는쌍속에써저가는것갓튼소리맥업시들니더니
조타! 하는소리 겨우 써러진다---간밤에 도망안햇단

증명장이
그뒤로 第二 第三 第四 그래서 아홉재 營에까지 이를째면
종달새도 시장타고 이슬밧으로 기어드는
열시 열한시가된다 두시간도 넘는 直立點檢이 겨우끗나서

이것은 習志野罫災民收容所의 아츰째 광경이람니다
일본서울 서 한五十里나되는 千葉海岸의

(33)

조선인 수용소의 날마다 적는 아츰째 광경이람니다
震災의 慘禍를 요행벗고 나안즌
총과칼에 호위되야 먼하늘만치어다보고 지내는
힌옷입은 족속의 그래도생명이 사라잇느라부르는 노래소리람니다

二

구름에 적어둘가 물우에싹여둘가 一九二三年가을의
이천여명 피란민이 이習志野벌의 假兵營에 몰녀와
힌옷입엇다는 일흠아래 이곳에 보호바더잇서다

내굴과 불고치와 또모든위험에서 겨우피해서
南米카피차 따러가는 어느埠頭의 移民떼가치
이리굴니고 저리몰리며 게딱지만한 이 兵營에 모이여살엇다

여러슨 새벽에 취군나팔소리듯고 놀나깨여이러나
팔자에업는 군인의 점검을마치고는

(34)

다시 보릿제와 짤닙으로된 쌍바닥에 드러누어
어넛턴 치운몸을 서로 등맛대고 녹인다
눈오는날 마른아지에 한쌍의비닭이 배를맛대드시
더러는그래도 풀밧에나가 이슬바더 낫츨씻고
학생들은『이곳은 내고향이아니언만』하고 노래도부르며
그러다가 장긔판 꼬니판 윳판이 이구비 저구비에 벌녀바야으로 喧擾하여질째
불시에 나도!나도!하는 쎄소리이터진다
이것은 아츰밥죄기 분배되기시작함이라
아홉대가리 배암가치 쌀간혀를 나불 나불 거리며
나두나두하고 손을드려 밥말나는모양
人皮를바르는 餓鬼이던가, 偉大한野性에 하느님도 눈살

을씹흐리러니

(35)

그속에는---
엇저다가그만 이마에 뚜렷한 烙印을밧은 이
불꼬치에 낫반댁을 왼통 까슬려 黑奴가치된 이
엇던이는 팔을못쓰고 엇던이는 다리를절느며
모다싸홈터로 도라온 廢兵가치 집일코 써도는 선물을 밧고 안저잇다
그래도 무엇이깁분지 서로 쿡쿡지르고 밤낫 히히히 웃는모양
아서라 광대에쓰을녀 다니는 원숭이랴면 너무도숭해
백설이 만건공한데 홀노 푸른 저참대라나할가
아하, 도살장속가치 비린냄새 피썩는냄새 옷짬냄새에 코가 저리건만 그도조타 써드는이무리들이여!

구름은 海濡-ㄹ가 地震일가
하늘에는 斷層이또 유달느고 물결소리조차놉다

여러슨 또다시『큰일낫다』속으로 외치며
하늘을 련해 치어다보고는 얼골을숙인다
마음에는 벌서 폭풍우가인다 까-만 소낙비바람이
산ㅅ제날에바치는 송아지가치 푸들푸들 썰며 정황업서하면서

三

그때 저리로 엇던靑年하나
신문호외 한장을들고밥비 내다르며 놉다랏게
『얘들아 이제는살앗다!전보가통한단다』
웨치는그소리에 沈澱되엿던 모든 공긔를 일시에 푸드득쩐다
『무엇이, 살앗다고 응? 응!』
그압헨 벌서 가라안는 배굽의 선객들이
구조정온다는 무선전신밧고 돛대 우에 기어오르듯
열이올나가는 수백명군중이모여섯다
청년은 더욱더욱큰소리로

(37)

『오늘부터 비행긔로 전보를 통한대』

『동경바다에는 각국군함이 먹을량식 가득실고왓대』

여럿의 나체는, 검어직직하게 잠겻든 여럿의낫체는

금시에 화색이돌며 부르는양업시

『에그, 고마운소식이여』한다

그리며 거개는 산뎀이가튼『고구마』를 눈압헤 그리며

또 밥죄기도 당짓 개 만한 것을 그리면서 빙그레웃는다

배부르게먹는일, 집에사럿다는 소식전하는일

아하, 가장 두큰이일이 되게되엿다함에 우슴만으로 쓴치랴 청년은

『동경역에는 긔차가 통한대 우리덜은그차와 군함으로 실어준단다!』

하고 다시외칠쌔 여러슨 애들모양으로 손펵을짝짝친다

『아, 여기또잇다 서울신문사에서 누가보러온단다』

(38)

서울! 주우리던 서울! 그서울소리한번 터지자

모다 저를잇고 우어!하고 歡聲을친다

나약한 부인네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울기까지하며

四

그러나 조곰잇다가 누가 어대서 듯고 왓는지
『북술기야 통햇지만 몃십만도 넘는 저이들이 몬저갈터이지』
『아직 한달은 넉넉히잇서야할걸!』하는 맛장구소리까지나매
고만 서리마즌 꼿살가치 여러슨금시에풀이죽어 고개를 숙인다
그때는 앗가보다도 더한 哀愁와 絶望에 잠겨지면서
그마음이야 철조망이 벌판을 둘너안싸고 番兵이 營舍이업섯다면
쏜살가치 하로에도 열번은더내다랏스련만
잘도 썩는다 일각이삼추가튼 이날을 잘도 絶望과 哀愁를번복하면서

(39)

하로는 불시에 나팔소리 울니엇다
여러슨 또 누가 도망햇군하고 치어다 묵묵하엿다
이곳의 律法이란 도망한자잇스면
곳 나팔불고 감시병이 말타고 분주히 쒸다니느이
그리고는 요란한 총칼소리와 말발굽소리가

아닌즘은 병영집채를 뒤집느이
중죄범인이 脫獄한째 모양으로

그러나 오늘싸라 이런 란리판눈치는 안보이고
이내 반장이달녀와『오늘사령관이 구경온대
옷도 바로입고 머리도쓰다듬고 조용히 제자리씩지켜!』
눈치빠른『루바시까』싸리는
툭쏘는듯하게『게엄사령관은 또 무슨일!』한다
여러슨 꼬니판도 타령도 다 집어치우고

(40)

골싼붕대도 풀어감으며 눈꼽재기도 뜻으며 들성들성한다
그리고문은 째드시 열니며 그안의쌈내대씬내발진내를 모다쓰려낸다
그릴째 다시 나팔소리울니더니만
뒤를이어 훈장만히단 장군하나가
개선문을 드러서듯 석을 잔득 치어들고 나사오더니
여렷의 경례를밧고는 실엉에달닌 生藩대가리가튼 수천수박개두개골을보고는
은근히 손을부치며 지나간다

營內는 정숙하여진다 알수업는 공긔에싸어지면서

일행이도라간뒤
여럿에게는 선물이라고 구은 고구마가왓섯다
어린애게게는 과자봉지도
그뒤로도 몃츨에 한번씩은 륙군대신 사단장 쏘무엇 무엇

(41)

시찰을 왓섯다---이피란터에 시찰을, 구경을

五

『여보게 돈별이 낫대!』
『응?』
『송장을 메나르면 하로 돈십원씩생긴다네』
『저런 십원씩이나!』
『인제 로비나 버러야지 집에두 보내준다는데』
『암 죽어도 제고향귀신이돼어야지 그런데또나갓다 경치면엇저나』
『그를생각하면 집에가지나 돈은 하늘에서 써러진다던』

『십원! 십원! 좌우간 이 상처나 나어야지』
『그때까지 송장이 부터잇서주나!』
이런말이 때국이조로로 흐르는 상투군의입에서 련해흐를때
熱病은 소리업시 여러가슴에 숨여드러라

(42)

그쌘인가 귀뚜람이우는 야방중에 이병은 더심해지느이
荒凉한 벌판에서 총자루 벼개하고 날새이는
멀니 출정나온 장사패가 맛보는것갓튼이밤중에
馬糧草우에 몸을굽히고 한숨쉬는 수천생령의 그밤에더커지느니
젊은 안악네는 그래도 보선볼집네
늙은 총각은외마대 城主푸리 부르네
평안도 내기의 수심가도, 넷거리의 내굴가치 숨어들닐제는
파---란달이 그둥주리를 은은히빗최기시작할때
수천수만의 꿈은 몹시도 흐트러지며 눈물은 저절로괴이나니
五丈原의 가을밤도 이러케 蕭條햇던가
웻털누의 古戰場도, 더구나 국사범밧는 倫敦塔도
이러케도 처량하엿던가? 피비린내도 이러케?

쑴은차다 異邦동포의 쑴은차다
파---란 달비체 젓어우는 써 단니는이 쑴은 더욱도차다
더구나 마음속까지 파---란 쑴으로 싸진 病人네이야
쎄만남은 그몸집은 藥이天使언만
그약조차어더 먹지못하는 이곳이여
하늘만 애연히 부르고지내는 病室은 너무도 처참하다
오만한 백성에게 내리는 하늘의단근질을 피한목숨이
력사를 달니한 어느손에걸닌 달근질까지 피한목숨이
이제또푸른다락 쑥짝하는 독갑의쎄가튼 病魔에까지
목숨의 단근질을밧는다면 아, 하늘은 너무나무심하느이

六

널창아래 쑴이 거미줄에걸녀 울때
고향의쑴이 修道女의「하느님」가치 련해 病人의가슴을 스칠때
말먹이 짤우엔 沙洲를 건느는 알는이하나

또 그 곁헤는 女王의 침실을 지키는 騎士와가튼 청년하나
둘은 고요히 붓잡고운다
밧갓헨 파수병의구두소리도 끈첫다 이깁흔 야밤중에
『여보게 우리날이갓가워오네! 속히 이러나 응』
그러나 그대답은 泣血鳥의마즈막가튼 괴로운 기츰쏜
『여보게 이사람 정신을 차려 응 아직갈때아니네』
그러나 이번도 역시 괴로운 긔츰하나가 그대답일쏜
『軍醫는 곳낫는대! 어서안십하고 마음을 든든히가지게』
그때 겨우 病人은『자네는아지! 내병을 내목숨을
나는 펠세 肺여 그도 삼긔라네!』
그리고는 모든 절망에 直面한드시 긴 한숨을쉰다
『아직 십년은 괜찬어 응 십년은』
『십년? 응 십년!』하고 외우더니
『십년은 사라무엇해 죽어야지 엇 죽어야지! 내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졍하고 굿어!』
『무정? 구더?』
『암! 어제까지도 내마즈막피라도 어느일을위해 쏘리려햇지, 어느 손팔들이 너무 몹시 괴로움밧는것보고 이몸을 쯧잇게그러나나는 그를 잘못차젓네!』
『그를잘못차저?』

『그럼 우리가튼이에 그라함은 쌍이아니엇네 지난해긔록이아니엇네

이것을늣게깨다랏네 앗가운생명을 페에든피가 다 마이도록 늣게 깨다랏네 모든 것이 느젓네 그럼으로 나는 갈려네』

『결국은 마천가지어! 우리네찻는 두가지가 결국은가태 응 그러니 그거룩한일을 하여야지』

병인의목소리는 몹시썰니며 다만『아니』하고 입속말할쑨 청년은

『웨 그런말해? 누이가불상치안은가』하며애원하듯

『자네나 내나 핏제사터에 모인동무네?우슴이업는 지난해를 엇지보냇는지 긔적이녜 이제또 이피도움을맛보랴고?』

(46)

그리고는 다시 나츨 마른짤단속에 파뭇는다

靑年은 고요히 병인의팔을 붓잡으며 썬다

썬다 썬다 알수업는힘에눌녀 썬다 그리다가 그는왓! 하고소리내어울며

병인을껴안는다 병인도 그제보니 늣겨운다

둘은 알수업는 슬품에 운다 운다 작고운다

하늘의참혹한 配劑를 이제야 깨다른드시----

七

무덤가치도 온 收容所가 고요에 잠겻슬때
멀니 분주한 발자최와가치 웬 젊은녀자하나 이병실로 다라오더니
청년을보고 놀내며 골을숙여 례하고는
가저온 약병을 분주히병인의 입에대인다, 그제야
『인제왓늬』하며 병인은 얼는눈물을씨스며

(47)

청년도『엽대 약국에 게섯서요?』
『네 약제사 잠깨기를 기대리느라고--- 참실례햇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접은드시 병인을향하야
『옵바 좀 엇더세요 미음써오릿가?』
『그만도라!』하면서 병인은 녀자의 팔목을씻으러
자기 가슴에 고요히언고는 눈을감아 버린다 마치운명하는드시도
『옵바! 사흘이면 낫는대요 이제 세밤만지내면』

『흥 사흘?』하고 병인이 우스려할째
앗! 캑하더니 입으로 선지피 한뭉뎅이소사나온다
청년과 녀자는 얼는 수건으로바더낸후
아모말업시 고요히 앗가 자리에눕혀노앗다
멀니 千葉海岸의 파도소리
마치 어느 가어야할 목숨을 재촉하는듯
셋은 아모말업시 그저 울엇다 울면서 그한밤을 새엇다

(48)

애닯은 마음이 세가슴을 흔드는바람에
아하 習志野의밤이여?
외딴나라백성의 꿈을싯고 다라나는 兵營의밤이여
방방마다 코구르는소리 요란히도나는데
고요히 고요히 울고 새는 세청년의 밤이여
어대서 상두꾼발자곡이 들니며 종소래울니느것갓다
아하, 슷업시 외로운 이한밤이여! 엇지가려는가?

[三] 눈우에 오는 봄

一

(49)

저리 鐵條網건너 큰 길가에는
붉은 골보동인 젊은 안악네
洞庭湖 아흔아홉구비 물결을안고도는 採蓮女와도가치
金붕어가튼 넙적다리를 앗김업시 내노코서
스튼거름을거르며 아모말업시 지나간다
바로그뒤로는 세간그릇 시른 낡은 馬車
風幕속앤 거이 白骨된 로파를 시른 낡은馬車
써 다니는 落人이 서백리아벌를 지나가듯
하로에도 열도 스물도 더 보여지는 이 피란민의쎄

어대서 오고 어대로 감인가

(50)

갑작히 두견새우름이 그립던가
진달네꽃이손질하던가넷날의꿈이차저드던가시골로써러

지는무리여
인생이란 원악 길손이라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流星가튼 길손이라고
아아, 길손이되여, 어제는 都會서 잠들고 오늘은 쌍으로가는가

二

바로 그때 저리로 누가
戰場으로 내닷는『짠닥크』가튼 긔세로
『고구마가왓다! 賣店에 고구마가왓다
소원이거든 내뒤를 싸르라, 싸우지들말고』하고외친다
그소리, 戰時公債를 모으는 名女優가튼 그소리
병영의온 구비구비를 스처울닐때
류리창으로 미여지게 여려사람이 쒸여나온다
참말 여려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러케만히 잇섯던가하리만치

(51)

장긔판도 온데간데, 쏘니판도 볼일다보앗다고
온 하로 은진미륵의 코 써러지기 기대리듯

먹을 것 오기를 기대리던 만흔무리들이
압흘다토아 그뒤를 싸라간다

움물가에 속옷쌔던 안악네도
잔디밧에 짤쎄던 늙은총각도
또대야걸고 밀가루 썩지어먹든 중국사람들도
불이야 불이야하고 손을털며 뒤 싸라간다
거기에는 生命의 帝王이 暴動을 이르킴이다
살려는 거룩한美와『젊음의 힘』이 창을쥐고 바야흐로
주우림의 牙城을 마구 殺戮함이다
아모조록 이저집시사!하고빌어오던 飢餓와 苦痛이
피여논 香油불가치 불꼿을날니며

(52)

그本能에 창귄王師를보냄니다『네로』가치肉身을 뭇질느고저
밤내 눈물따며 바위꼭뒤에안저 그남편과아버지
도라와지이다! 하고 비던 과부와 遺兒가
몃絶望과 몃歎息과 싸우다가마즈막에
물결놉흔 저 먼 水平線우에 나타나는 넷날의배를보고서

그냥손퍽을 짝짝치며 몸부림치드시
여기에는 오직 벼락이다 불안 폭탄이다!기대림뿐이다!

三

써도는 슬품에 밤내 우던
『永遠의아츰』으로부터 쪼겨나는 옵바정곡에 밤내우던
처녀는 약물을 쓰리다가 이소리에 쒸여나와
옵바에게 죽한그릇 가저다 대접하고
오랜만에 움물가 개버들아래로
느진 갈바람맛에 삼단가치흐터진 정신을 차릴가나

(53)

오류월 菜田을 한가히 도는 범나비가치 가만히 나섯다

하늘은 봄바다가치도 푸른데 맑은데
六花가튼 보---얀구름이
妓生點考하드시 쌍쌍히거러 드나든다
가만히 귀기우리면
솟등에안저 장타령하고지내는 牧童의 소리

느림느림한 하늘한쪽으로 퍼지며
쌍우엔 숨막힐뜻한 꽃풀의香氣가날려
사적으로 어엽분우슴을 쌔리는듯
단풍닙, 들국화, 시드른양귀비꽃들이 쌍의 젖에 잔득취하여
바람불때마다 쒸노는 개버들아지에
수접은 어리광을보내는 듯
하늘도웃고 구름도웃고 무심히 防築에 섯든색시까지도
빙그레웃는다

(54)

그는 그림가튼 이경치에잠북취하여
金잔디우를가고 오고 또가고 오고 저절노 마음은
마즈막영화를 누리고가는 노랑나비예 싸러지며
개천가 범부체꽃이안타가워 쓰더코에 쿵쿵내마터본다
무지게는 삼각산도 넘는다고
몃번 혼이 하늘에 오르명 내리명하엿던고

갓득이나 가는가을이 색시가슴에 숨여드는데
멀니 벌건너 제스처
水天이 맛대인곳엔 犬吹岬바위가

山紫水明한 房總半島에 싸여
힌 물결에 각금 자맥질치면서
웃줄 웃줄 춤추며논다

(55)

그모양이 마치 粉黛칠한 六宮宮女가치도
맑게 쌔끗하게 浮彫가치 하늘한끗에 기대여보인다
파도에싸라 오르내리는 그바위를 바라다보노라면
알수업는힘이 색시의 온몸을 오르내리듯
마즈막가는 범나비 국화송이에 안겨헤칠째
아---, 색시맘도 가는 靑春의던지는 哀愁에잠겨라
휘기는하여도 씩지는마세요,라고 애닯어라
年年歲歲가을을보내는 개천가 실버들이여, 색시여,

자곡자곡 드듸고가는 日月
고요히 인생의 귀어래를 자박자박 드듸고가는 日月
개천가 수양버들 닙새 한번 훌틀째마다
초녹이드시 초불녹이드시 고요히
靑春의 香油기름를 한되씩 한말씩 담어가건만

(56)

젊은이 압헤 쑤려논 꼿송이를 한아름씩 한아름씩 쌔아서가건만

남원 春香이당함보다도 더 괴로움, 그守廳을

日月은아하, 일만靑春에게 强要하건만 누가 막을길이나 잇스랴

四

그는 발끗으로 안타가운드시 쌍을쑤지니

게는 아직 草綠빗 파---란움이

하늘이 그리운드시 포도도 웃고잇다

處女는 저절로 가슴이 쒸놀며

銀杏아지하나 살스래 비틀며 노래부른다-

『버들이웃는다 개버들이웃는다

맑은저하늘보고 개버들이웃는다

그러나이마음은 무엇에나---』

(57)

『구름이간다 저구름이간다
푸른하늘 수노으며잘도간다
그러나 이마음은 어디메로---』

아름다운 노래가락은
압놈이 뒤꼬리를 뒷놈이 압꼬리를
물고쓰드며 물고기가치련해
잘도 하늘에 헤염치며--- 올나펴진다
그소리 다치는곳마다 수업는 우슴피어나
온세상은 즐거운노리터로 장식하여지는듯

『세상이 사렷네 왼세상이 사렷네
구름을 버서버린 백두산가치
왼 세상이 깃붐에 사러젓네

(58)

그러나 오, 그러나---
어제밤 부던바람 언제나?
어제밤 오던비 언제나!』

마즈막 哀然한 音調가나오며
에텔올 싸릴때 온 에텔을 싸릴때
넷터에 비가온다 넷재에 煙氣가낀다
그리면서 淸楚한 人魚가튼 그양자
다시 銀杏나무아지에 지댈때
알수업는 눈물이 쌈을적시면서도
즐거운 멜로디에 저로도 취한다

五

그때, 뒤 숩풀속으로
사무새 쏫는듯한 휘파리소리 휙 나며

(59)

『실례 햇슴니다 이러케---』
하는소리와가치 엇던 청년하나 웃둑 나타난다
색시는 깜작놀나 두어거름 물너서며
하들 하들썰엇다
청년은 빙그레우스며『저를 모르심닛가?』
그제야 연지빗가튼 색시의 낫색이 조곰 풀어지며

『나는 누구시라고---』하며 수접은듯 골을 숙인다
그는 옵바의 벗임으로---어제 저녁 함씌울고새이던 청년임으로
『병실에가니 안계시기에…… 노래부르시는데 용서하세요』
색시는 아모말도 못하고 낫츨 더더불킬쑨

문밧게선 불시에 爆音소리터지며
노---란내굴이 兵營우으로 안개가치 기어오른다
아마 량식자동차 옴인듯

(60)

여러슨 그리로 내닷는다. 둘도 일시에 視線을 그로보내며

六

지금부터 스무날전이다
三伏녀름이 쌈못에 젓가락으로 인간을집허너흘째
東京『니코라이』敎會堂안에는
早大新人會주최의 하긔대학강좌가 열녓섯다
『아나』는 築地 海風잘 쏘이는어느 高臺에서하고

『컴』패는 이곳에 터를 정함이엇다
여기에는 C일의 두령인 K며 O며 A며
또 강청생도 멀니 인도, 비률빈, 상항등지로와섯다
조션사람이라고는 류학생들이 만히 참가하엿고
그째 만흔 무리들속에
眉目이 秀麗한 異邦女子하나
늘 눈을내리깔고 강의끗째까지 가만히안젓는

(61)

여럿의 視線을 몹시도 끄으는 녀자하나 잇섯다

강의는 대개 그림한장이라도 꽃 한폭이라도 우리네위해 잇는것아니라는말과
또 미인도 행낭어멈과 공자나 도척도 다 가치 먹어야 한다는말과
또 하느님을만들수도 잇고 업샐수도잇다고
더구나 조국이란 잇서도조타 그러나 업스면 더조타! 하는말
그러면서 련해 털보된 엇던서양노인 이약이를한다
한마디씩 써러질째 방안에는 숨막힐듯한 공긔가돌며

하늘이 세쪽이낫다 방안이 칼도 불도되엿다한다
여러슨 몃번 주먹을 다저쥐고 몇번눈을 흘겻든가
비, 나로드!가 旋風가치 여러가슴을 스칠째
白金은 녹어지며 血祭場에는 悲歌가 들니느니

(62)

여기왓던 그 異邦女性이 지금 이색시엇고
또 그때 한두번 옵바 소개로 맛나던청년이 이사람이엇다
긔적에갓갑게 이번진재통에 한곳에모여진----

七

둘은 아모말도업시 돌부처모양으로 서고만잇다
그야말로 돌부처모양으로!

색시는 안타가운드시 銀香닙을 쓰덧다
청년도 엇절줄모르는드시 銀香닙을 쓰덧다
그소리, 단 두그소리 하늘을울닐쑨

둘은 아직도 아모말업다 그리며 나무입새만 쯧는다

힌 말 누른소가 보리밧에 모이듯 아모말업시

(63)

그러다가 두눈살이 마조첫다 변개가치 급하게
처녀는 사내눈살에 쓰거문빗이잇는것보고 이내골을돌렷다
청년은 녀자의눈살에 太陽가튼 熱이잇는것보고 머리를 숙엿다

소리가, 나무닙싸는소리가
느진봄 비방울가치 쑥 쑥 하고 神秘하게 공간을울렷다

눈먼거지가 제장단맛에 돈주머니도 닛는듯
두젊은이는 은앵닙싸는소리드르러 이곳에모인듯, 세상에나온듯

그러나『쿠-핏트』의줄바는
벌서 돌비석가튼 둘의목을거러 한곳으로 한곳으로 모엿다

청년은 다시 한번모앗다---

(64)

하느님이 내 지내가는 길가에 이색시를 보냇군!하며

녀자는 또---
이어룬이 내마음바다의 진주캐기로 하느님이 보냇군! 하면서

두魂은 바야흐로 날개를 도처
재넘어 벌건너 바다지나구름지나 하늘속으로 날때

색시의 싸는 손목우에
아아, 불이된, 온몸이 불덩이다된 청년의 손아귀 덥혀 싸혓다

돌개바람이 분다 소낙비 퍼붓는다
窒息할것가튼 호흡이여, 죽엄가튼 沈黙이여, 또 狂亂이여

(65)

불깃 불깃한 두볼이여, 숨막힐뜻한 異性의香氣여
肉感的으로된 그양자여, 魅惑的의 그눈길이여 두몸은한

곳에불탓다

幸福에, 神秘에, 未知에싸여
몸을 빠르르 떠는모양이여, 인간의 모든 愛慾이 가슴에서 唏嘆함이여

아하, 부터라, 부터라 두靑春의 불길이여
高原의 燎火가치 生命기둥을 灼熱시키며 부터라
새로운 새벽이여, 새로운 나라의 展開여!

八

여기에는 아모말이 업섯다
도레미파나 미워한다 사랑한다하는 모든 音響이
어머니 젓꼭지문 嬰兒가치 울새도, 우슬새도업게

(66)

피와 靈---그물건이 봄물결가치 두 肉身을싸돌며
구름기둥이 두가슴에 靑春의 궁궐을 지엇다
몸을 파먹는듯한 두 단 숨소리여

情熱이 넷 분두지가튼 生活을 태어버리는 쓰거운 숨소리여

얼마나 만흔 목숨이 靑春에싸혀 사랑을 노래햇든가? 제自身을 不朽케햇든가?

봄날가튼 낫빗치어, 쑴꾸는듯한 눈살이여, 힘잇게 사라나느 意思의힘이여!

生命이여, 빗이여

그리고 未來여! 永遠이여!

약한 肉身은 極光을 물고뜻는 獅子와가치도 勇氣에벗치고

의롭던 영혼조차 白銀가튼 나래를펼처

이슬보다더속절업는 세상이다,그래도그래도!하고 노래를부른다

(67)

이 거룩한노래에 온人類는 몃천년을두고 저를 놉히게 해왓든가! 저를갑잇게 꾸며 왓든가!

『나는 외로운 절당,

구름과나동무하고지낼나는 외로운 절당

그래도 당신은 이절당의 부처님!』

『나는 살마즌 사슴,
안즐 泉石도 업서도라 다니는 傷밧은 사슴
그래도 당신은 달이람니다, 냇물을비처주는 달님!』

『나는 아흔아홉마리에 뒤써러진 외로운 양
그래도 당신은 이몸을감처주는 쌀대-』

(68)

오래묵은 돌부처를 지키는 절ㅅ당
자욱 자욕 피흘니는 사슴을 구하는 달빗
이리와 暴風雨를싸주는 양의 牧場
아아, 여기에는 生命을 바치는 노래가들녓다
하늘에 절하는
香油피우며 절하는 幸福한무리의 춤이보엿다!

둘은 오랜 抱擁을하엿다!
流星은 또한번 흘넛다!

八

두가슴의 秘密은 경복궁 대궐안가치 모다패엇다
긴장마는 겨우개엇다

(69)

『당신은 저를 옵바라고 말일!?』
『……!』

어린애가 꽃나비를 쥐려드시
알수업는 힘에싸러지는 둘의 誓約이 시작됨이여

『그러고 당신은 저 이외에 다른사내를 사괴지말일!?』
『……!』

두입살노는 단숨이 돌앗다

『당신이여! 그가슴을 열어지이다 이肉身과靈魂이드러안게!
그래서 우리는 林檎이됩시다, 한평생 썩지도 顔色하지 도안는 香내나는림금이---』

두몸우으론 再生하는 暴風雨가 지냇다!
太陽이 또다시 그우를비추엇다!

九

긋대 저리 營廠안으로서는
저녁 나팔소리 夕陽을 스처 길게 울려둘엿다
여러사람을 제자리씩 도라오라하는 나파소리---
어대서인지 헷총소리 두어방 들닌다
둘의꿈은다시 現實에 도라갓다
긴꿈을 깨고이러난 둘은
풀밧을지나 숩속을지나 金잔듸를지나
각각 제兵舍에 도라갓다----
黃昏은 또한번 收容所를 灰色 칠하는데, 平和로운드시

[四] 血 祭 場의 노 래

一

(71)

그날밤이엇다----
불난리 판가튼 저녁이 겨우끗나고
우수러한 촛불이 첨아끗거미줄에 수노을째
黃昏에싸인 兵營이 괴롭게 숨쉬고잇슬째
죽엄이 여러 가지 형체로밧구어가지고 리재민을 위협할째
그째 벌서 방안에서는
와 하하!하는 우슴소리와 수심가가락이 터진다
더러는『리정숭이 쌀삼형제두엇는데, 그럿---치!』하는 넷말도
또 장비 가마를타고하는 소설외우기도,
그째 갑족히 누가
『저것봐라!』하며 창을막내밧고 내뛴다

(72)

여러슨 몹시놀나 화들 화들썰며

련해 중대갈무리들이 내 쒸는양을본다 그리고 뒤에서는
『또 사람을 죽엿니?』
『强姦을하엿는게지!』『도망하다 붓잡혓는 가보다』하는공론을 분주히하다가
참다참다못하야 여럿도 그뒤를 싸른다

發狂할드시 모든神經이振動할쌔
다다른곳 建物이 三角도 五角도되게 흥분되여질쌔
단오ㅅ날 씨름판가치 구경꾼들이모여섯슬쌔
누가 단짐 훌훌 쌈으며 내다라온다
『아모것도 아녀! 애를낫대』
『처녀라나 녀학생이라나 애를낫대!』하고 픽우스며 툭쏜다
『흥! 언제서럿길내?』

(73)

『선것이 근심되나? 녀학생은 일수라네, 그런데 아버지를 이젓다나!』
『흥 애는 어미로만 되는게지, 그래 어듸엡버?』
『자네할미마치나 엡버, 그러나 근심말게 애는죽엇서』

하고 하하하 크게웃는다
『그럼 사산이로구만!』하며 여럿은 哄笑한다
豫期하던 엇던 慘劇이 업슴을 섭섭히하면서

조곰잇다가 留學生들이
그죽은애를뒷포푸라밋헤파뭇고마즈막무덤을향해이러케
노래불넛다
이란리판에불상하게죽은 갓난목숨을 위해서----

『추어두 혼자가거라!
멀어두 혼자가거라!

(74)

외로운 네조국과 世紀는 한숨으로 이러케 보내노라』

二

청년은 눈물을 흘니며 이會葬으로 도라와
팔낙 팔낙하고 고요히 부터오르는
리재민 목숨가튼 초ㅅ불을바라

묵묵히 섯다, 그눈압흐론
어느 안개 자옥히낀
斷厓의, 斷厓의, 풀한폭업는 저막읏斷厓우에서
머리칼만한 목숨을 붓안고우는 운명하는 남편에게
창에찔닌 노루가 제피를빠라먹으며 죽음을 보고잇드시
거이 거이 사라지는 그 남편에게----

행여나! 하고 불붓듯 비는마음이
바위를지나 뫼를지나 나뭇극을지나

(75)

白沙불을지나 저 골잭이속에
겨우 똑똑---써러지는 한방울의샘물을
타는가슴으로 손바닥에 밧어가지고는 급하게 바더가지고는
숨갑브게 숨갑브게 天丈길도넘는 斷厓로斷厓로
愛人의 목숨을 구하려 다라오는 女人이보인다,
여인이보인다-----
그는 다시 눈을을감엇다, 방안에는 여전히 초불이팔낙팔낙하고 붓는데

三

여러슨---
한낫씩 둘씩 꾸벅꾸벅 잠이드러
하로의 지리함과 괴로움을 이르러든다
어대서 넷날에 듯던 祠堂집웅 싸막싸치 소리들니는듯
그소리 고요히 섞이되야

(76)

여러사름의 가숨에숨여드는듯
그러면애끗난 鄕愁가되여 여러머리를골니는것이여!

청년은 이러케
몹시 근심에우다가도 씨슨듯잠자는
그네의낫출 바라 절하다시피 幸福을빌엇다
『가리어낸 백성들이어,
人頭稅를 물기에는 너무나거룩한 인간들이여 복잇슬지어다』하고

병영은가라안는 배가치 점점점 어둠에 싸힐째

청년의눈은 넷저자 城壁가튼
익씨기고 거미줄씨운 그방벽에
불비체 무엇이 두두럼 두두럼 올니민것을보앗다
그는 꿈에迷宮에드러가듯 한거름 낫가서 처다보앗다

(77)

몃가을 봄이 드듸고갓는지
그壁은 세월의 발자곡으로 찻는데
모든 壞滅속에도 이를악물고 버티어 기튼듯한
손톱으로 씨은 글자여!획이여!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한드시
손씨락으로 문대여보앗다
그러나 두드럭은 아직도 뚜렷하게 남엇는데
첫머릿에는 G라는글자 분명히 크게적히우고
그다음은 E, 또 R 또 M
金鑛줄기를 파 내드시
그다음 그다음---마치 몃천년묵은地下室의 浮彫모양으로
련해뒤를 씨을고 나오는것이여
나오는족족 百八聯珠모양으로 주루루 쎄여짐이여

German, Cherup

그는깜작놀나며,『독일만세』라고불넛다

넷날에 독일병정이 포로되야 이곳에갓첫다더니

한점, 한획 피로, 눈물로 기처둔 遺跡의 이글자가 오늘까지기틈이여

청년의눈에는 엇던 悲壯한 사실이써오른다---

四

카이자-帝室의 봄날의꿈이

『파-리』를 마스고『로-마』를 헐고『모스코바』를 안을때

十字鐵勳章이『世界統一』을 꿈꿀때

황제의일홈아래 戎衣를입은 령토락탈의 權化인

수만壯丁이 德國山河를 써나서

혹은 西部에 혹은東部로 모다 戰線에 나설때

그때 老大國의 膠州灣에도 白晝에다니는이 幽靈이나타나젓다

그러다가 恨은 길다여름구름이어!하드시

(79)

천하정복의 鴻業도 속적업시
두손을 묵거서 白旗와함씌일본에바처드렷다
그래서 數百士卒이 살아죽은몸이되어
이곳 일본 習志野兵營에 幽閉되엿섯다
밤마다 밤마다配所의 窓으로 파---란달빗을동무하며
몃번 새벽에이즈러지는 별에 鄕愁를보내면서
아하, 그로부터몃번달은이즈러젓다 소삿던가
흐르고흘너 아홉해만에 由緖잇는, 엇지아렷스랴
이兵營에갓튼달바라보며 이무리 찬씀 꾸단말가!

『에그!저큰 것 장개도 못보내구서』하고
한숨쉬며 보내주던 늙은어머니
먼 동내 산빗탈이까지 싸라나오며
『쌜니도라오세요. 네? 쌜니 도라오세요!』

(80)

하고 발구르던 이웃집 金髮아가씨
그러다가 갈메기 물결을차는
『킬---』군향을 목숨으로 이별하고서 멀니出征나왓다가

싸홈터에서 총알에 썩구러지미
『카이자, 만세!』부르고벗을갈나지던일
외로히 砲煙속에잠드던일
그러다가 平和克復을 압헤두고 敵軍에 投降해서
이곳에가치어잇든 먼南國의靑年들이
夜半三更 귀뚜람이에 몇번 斷腸하다가
하다가 하다가못해 낭중엔 壁에쓰러저 우는양이여!
그러다가 愛慕의 마음이 이널壁을 不滅케함이어!

획은쓴기다가도 손톱날이 무즈러짐이여
무즈러지면 또다른 손톱날이 이음이여

(81)

획마다 갑은 피여
마르면, 열손가락이 다마르면 또다른 열손가락이 이음이어
어두우면 촛불아래, 밝으면 별빗아래
몃날을두고 쌋고 쌋고두고싸은 선물이어
덧업는 記錄이어, 그래도 아니하던 못하겟든가?

글자우에 안개가 썻다가 젓다가

거미줄우에 말나부튼 죽은 왕벌이 쎄
널쪽도 酸化해서 점점 모양을 이저가는데 그래도
뒷날 이가슴을 올니려 남엇던가,아직도 촛불미테 넷자곡이 뚜렷하다
문지르면 획마다 오실 오실 재되여 내려 안즈면서---

六

놀질하고 간다 잘도 놀질하고간다 쑴나라로

(82)

수천만 생령을시른 兵營은 별하늘을 잘도 놀질하며간다
벌서 잠나팔분지 오래젓는가 새벽이 거러오듯
모든 寂寥가 大地를 싸고돌때
그때 엇던녀자하나 병실문을 고요히 제치고는
저쪽으로 외투쓴 거문 구름자 쓰을고가는
監視兵모양이 幽影가치 사라지는양을보고서
밤하늘의 비밀을엿듯는듯 얼마를 잠잠하고잇더가
치마폭에 달을담으면서 소리업시다러나온다
마치 남의집 담장넘는 살구도적애모양으로

병영은크다란 제 그림자를잔듸우에 눕히고
기츰한번업시 고요히 잠드럿다

녀자의 발자최는 점점 쌀너젓다

(83)

비닭이가튼 눈초리를 련해 사방에 펼치면서
어느쯔만에 집채하나를 지냇다
또하나를지냇다!
그러다가 그는 第六營압헤와선 웃둑 발을멈춘다
그러고는숨소리가늘게 귀를 판장에 대이고는
안에 인적을 주의해 듯는다
멀니서 솔바람이 치마자락을 날니는데
점점寒氣가 乳房까지 얼게하는데
녀자는 씃씃내 문을열어全身을 그속으로숨어버리엇다
구름속에 살작잠긔는 샛별가치 아조 빠르게

그안에는 코소리 놉흐다
서너마장이나 련한 장칸된 좌우쪽에
팔을벼개하고 구덱이가치 구불데리고자는

(84)

수십수백의 상투쟁이와 중대가리가
모다 버섯대가리모양으로 머리만 체여들고는
무슨 神詑을밧고 고요히도 陰酸한 空氣속에잠들고잇다
그래도 코소래만 놉흐다, 긔운차다
각금가다가 쿡쿡하고 기츰짓는것
배암과가치 련해골을 종깃 종깃 드는것
서로 허리를걸치고 동을 맛대고잇는것들이여
별빗체 모다 문둥이쎄가치 보인다!

녀자는 숨을죽이며
이生靈들속으로 가래드듸며간다, 고요히 조심스럽게도
갓금 대가리를 다첫는지『으흥!』하며 놀나번제눕는소리날째
깜박 깜박 치썰니게도 놀내면서
한순간, 두순간이 지내갓다, 겁호 다섯발자곡이다 옴겻슬가 할째

(85)

멀니 地靈을 울니며 쑤벅벅벅 것는발자최소리,

저리 싼세계가튼곳으로 울녀들니기시작햇다
그는 깜작놀나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우렷다
역시 알수업는, 이한밤에 알수업는
그발자곡소리 가슴을파내리듯 점 점점 갓가워오는데
그는온몸에 쌈이 옷소속 지엇다
그러더니 귓싸으로 싸작울니는 그발자최
지리 정반대의 문압헤와 쑥 슨치더니
별비치 째여지며 엇던 巨大한物相 하나 웃둑드러선다
얼마는 잠잠하다, 참말 죽은 듯 잠잠하다

그도 얼마를 가만히 섯다가
가느다란 기침을한번하고는 다시 쑤벅쑤벅 것기시작한다
녀자는 온머리칼이 하늘을지르고 간을 베여가듯 놀냇다

(86)

그러다가 얼는몸을 피해
그엽 널벽에 싹 붓헛다, 첨아에 달닌구렁이 가차
그리며 한거름 두거름나사오는 그를注視하엿다
억개에 총자루메고 긴구두신은파수병이어!
녀자는 온몸에 진저리 도라감을 깨달앗다

그의 손톱은 바위드렁 문어가치 널벽을 또 한번 쓰덧다
그서래에 누가 놀낫는지 응! 하고기지게컨다
병정의 거름은 점점 쌀너젓다
녀자의 놀나는눈이 더커질사록 겁난가슴이 더 쒤사록 급해젓다
더구나 요지음에는 밤중에 겁탈하는이와
남의옷 도적해입는 자가만허
들키우면 경치우는 터이라,그래서 야밤에도 이러케파수 보는데

쑤벅 쑤벅차는그소리 아조 귀밋흩 드딜째

(87)

녀자는 가슴에 못아귀 치는듯 몹시압헛다
모자를 재켜쓴 그병정에게 들킬생각을하면----
누가 잠꼬대하는지 불시에 몽혼약에 걸닌것가치
『하나---둘---』번호를부른다
엇던이는『여보!을남어미---』하며 헷소리 치며
병정은 이모양을 먼히보더니 빙긋 웃고 지나간다

녀자는 병정압헤 자긔몸이 너무선명하게드러낼것을알고
입속말로『에그!』하더니만
날새가치 몸을날려 그엽 干草무덱속에 피한다
병정은 압헤서이런 動亂이잇는줄도 모르고
한거름 한거름 벼개벤양, 이불덥흔양을 주의하여보며 지내온다
그리다가 한복판쯤와서 발을웃쑥멈추며
사적을 휘 휘 둘너본다, 마치 그뒤쌀내가치 걸처잇는 녀자를본드시

(88)

그러고 금시에『이년!』하고 쌕소리칠것갓다
녀자는 긔가앗득하엿다 사지는 오리 오리 풀너지고
엇저나 엇저나 이를엇저나?
世界破滅이 눈갑작할사이에 달녀오는듯
참말 이제머리칼 한오리 흔들니는우에, 그 瞬間에,아---
여러슨 여전히 씩씩하고 코 구른다
그소리 일종『리즘』을 이루어 아름답게들닌다
병정은 얼마를 귀기우리고듯더니
다시것기 시작한다 조심스러히, 고요히

조곰잇다가 앗가모양으로 널문을열고
쑤벅 쑥벅소리내며 이웃집으로사라저버린다----

그제야 녀자는 사라난드시숨을 휘---내쉬며

(89)

나비가치 몸을날녀열아무거름 옴기더니
널문닷친 방압헤와 웃둑선다
그리고는 문씸에귀를 기우린다
그안으로서도 역시 단숨소리 들닐샏
갓금 번제눕는 소리도 새여들니며
한참은 조용하다, 모든 것이 棺속일갓다
그때 그는 손을드러 문지방을때린다
그쏙-- 쏙-- 쏙--하는소리 셩안에서 치는
잉경소리와도가치 뚜렷하게 울녓다
그러나 아모 反響이 업섯다
제 두다리는 소리 절간 法鍾모양으로 밤의 집안을 함부로훌를뿐
그는 앗가보다 더모질게 다시두다린다, 한밤중에
쏙---쏙--- 쏙---하는그소리

永遠을지나가는인생의 쎄우름가치도

(90)

시산하게들녓다----

七

포푸라 그늘에서 쑴가치청년을 맛나보고는
색시는도라와어서 밤이되여지이다, 하고빌엇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의양자 눈에발피며
그러라네, 불가튼 정렬이
깁분듯도 안타가운듯도 그가슴을 태웟단다
세상에 낫다가 靑山만울니고가는 법국새라면
인생을 색시라는 무덤에파뭇고만다면
서러라, 시산해라, 애끗나라, 하는드시도
萬里長城을 밟고오는 그발자곡이여
어서 오서지이다! 하다못해 옵바병보시려도!
숫색시의 님그리는 그마음은 급하기도, 쌔끗하기도, 끗업서라
더구나 이러케 昏昏히잠든 병인을지키느라면

(91)

겻사람이 그립으니
안젓다, 섯다, 밑창을 닷첫다 열엇다
아, 긴 초저녁이여
개천가 수양 버들이엇더래도
벌서 열번은 으스스하고 노래치는 밤바람을마젓스련만---

窓아래에는 별이 몃치를 더느러지고
별빗마이는 다람쥐 窓문을 몃번 도드락거렷는지
멀니 營門으로서는 아, 그만 잠나팔소리들닌다
님의거름을 막는 잠나팔소리
그저 헛되히 마음을 울니는 마즈막 잠나팔소리
이귀한밤을 잘나버리는 그소리여!
그는그만 쓰러저허구푼 哀愁에젓다가
씃면 더큰힘으로 가슴에 肉迫하는 그이낫츨 씃며그래도씃며지냇다

(92)

탈고탈고 또탈어도 몸이여전히 괴롭어지건만 그래도탈면서----

마즈막에는 참을길업서 발을 동동구르고 울기까지하엿다
그때, 누가 귓가에서
『누가 써리랴 누가말니랴 못난둥이!』
『하늘은 모든 것을주되 그러나 단한째쑨이란다!』
그는 그소리듯고 絶望에서 소사나오며
『을하, 얼골만대하고 그말소리만 듯는데
그저 그쑨인데……참말 그저 그쑨인데』
하고서 전후불각으로 내다라
청년의 침실인 第六營으로! 第六營으로 이러케다라왓다
아아, 청춘의피는 사람을 굿세게도하는니!

이러케쓰거운사랑의손길이 외롭게도 문창을
똑-똑-하고 두다릴때

(93)

청년은 아직도 英字 울니소슨 벽을향해
싸홈 -- 出征 -- 부모리별 -- 斬濠 -- 毒瓦斯 -- 火災 -- 避難 -- 國旗 -- 피 -- 눈물 그러고
萬歲 -- 白旗 -- 捕虜 -- 祖國 --
이러는사이에 어제 잇던집채가 갑족히 재되고

앗가 사람이 송장으로변하며
또수양산고사리 --- 션죽교피빗 --- 함렛트 --- 루이십륙세 --- 니코라이이세 --- 린컨 --- 項羽 --- 漢武帝 ---레 닌
그리다가 앗가 들에서만나던 그일을생각하고 빙긋이우섯다
그룩한 선물이여!
바로 세상에사는 보람이잇서지는듯
밧그로선 또한번 문지방 두다리는소리 들닌다
『이한밤중에! 누구?』
이내 뒤를이어『혹시나----』하면서

(94)

希望과 의문에썰리는 손을드러 문창을 열어제칠때
밧갓에는 엇던女人像이 초불이빗첫다
수접은드시 골을숙이고잇는
『앗!』청년은 그한마디 남기고 엇절줄몰낫다
어느 깁붐이 막연한 속에나마 가슴에 물구품치며
녀자는 그놀내는 것이 우습기도하고 반갑기도하여서
『아니저--- 저---』
『네? 대관절 드러오시지오』

『선생님 즈무시는데---』

『아니 괜찬슴니다 저--- 저--- 그런데 혼자오섯서요』

방안에도 방밧갓가치 만흔사람이 코구르고 가로세로누어잇다

『저, 옵바가---』

『더심하신가요, 그래 아주 대단하서요?』

『咯血을 하섯서요』하고는 손톱눈으로 눈지방을쯧는다

(95)

『저런, 그래서요』

『그래서 즈무서요!』

하고 어리광치드시 눈살이 우슴으로변한다

『즈무서요! 그섇이요?』

하며 청년도 陶然한 긔분에 싸인다

『네---』

『그러고 오신뜻은?』

『그것을 무르시는뜻은?』 색시도 조곰 대담하여젓다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 잇슬가고요!』

『그것은?』

『당신이 오고십헛다는 그말슴---』

그때 어느새 사내손 아귀는밀가치 히멀금한색시손우에 덥혓다
두입살은 어두운속에 한곳에불타젓다
그리고 둘은 차츰 저를 이젓다---

(96)

그날밤에 둘에게는 童貞과 處女로의
가장 거룩하고 神秘한일이 지내갓다!
둘밧게모르는--오히려 두몸이쌔끗하여젓다할 그거룩한일이!

八

이튿날아츰
『우리네는 감옥에가거나, 도적이되거나, 거지가되거나, 죽으나할밧게
그런데 나느 넷재길을 취할나네!』
하는 한마듸말를 남기고는
그의옵바는 피를 입에문채 영원히이세상으로써낫다
허약한몸이 하로밤도 지탱할길업서
눈속에낫다가 눈속에죽는 힌끔가치

소리업게도 소리업게도 가버리고말엇다

(97)

녀자와 청년은
『산송장으로부터 죽은송장으로 갓구나!』하고 눈물흘넛다
인생이란 과연 한송이 꽃이엇던가?
봄비에 움도다 가을바람에 흔적도업시날녀나는-

九

그의 시체는 썩을렴려 잇다해서
곳 火葬하기로 하엿다
그래서 조고마 괴짝하나 꾸며白骨을너코
두서넛 壯丁의억개에메이여
멀니멀니 문밧그로 나갓다
누이와 청년과 또여러반장들과 군인은그 뒤를따르고
이천도넘는 여러슨 말업시 외로운 葬列을보냇다
누구든『다살아서 죽는고나!』하며 앗가워하며
녀자들은 치마자락으로 눈물으리씨스면서

(98)

얼마 뒤, 아츰밥이 논아질째
누이는 白骨너흔 괴짝하나 안고도라왓다
둘은 얼마를 울엇다---

10

이러케 모든 것이 결정되여갈째
그날밤에 또한가지 놀나운 하늘의 配劑가 시행되엇다
그것은 이 리재민속에 언잔은 分子가잇다고
그를 쌔 버리기위한 숨은계획이
이날밤에 쥐도새도모르는가운데 시행됨이엇다
인제는 잠나팔도 불니라할째
난대업는 등불업는 자동차한대 兵營압문을 지킴이---

얼마 뒤 靑年네명은 말업시 스을너나와

(99)

그 자동차에 실니엇다

자동차가 거이 써나려할째
수군거리는 것소리에놀나 그녀자는
갑작놀나 밧갓흐로 나것건만
차는 벌서 爆音을치고 임이내다랏다
『아, 여보세요 선생님!』
그대로 녀자는 失神하여 쌍에썩구러저 운다
바람은련해 犬吹岬의물결소리전하는데, 그소리
『가네, 가네, 내도라가네』를부르는 듯
길게 밤내우는 애끗는女人의우름을
고요히 고요히도 새벽銀河에씌어보낸다----

그네사람속에, 그청년도 씨엿섯다----

[五] 殉 情

一

(101)

『가노네 가노네 내 도라가노네
아버지집으로 내 도라가노네
바람에날니는 구름기둥싸라서
넷날의터전을 내 도라가노네

『넷날의터전엔, 촛불아래관쓰고
孔子曰 孟子曰 외우며안졋는 늙은아버지
竹筍괭이를 안고도는우리 어머니게시다네
더구나 싸치나라날째 담장넉복송아꼿 써러지는---』

『복송아꼿 써러지면 아담북 머리 꼿고서』

(102)

오솔길지나 냇가에 나물씨츠려가고요
외기럭기 가을달 허리타고넘을째

옵바와가치 이삭줍기 나서는----

『가노라 가노라 내도라가노라
아버지 집으로 내도라가노라
청두화루에 불써노코 기대리는
넷날의 내집을 도라를가노라』

『옥돌이와 꼿분이와 丙南이와 順伊사는
書堂집과 敎會堂과 초가와 기와집모여사는
또 대보름이라달쓸째마다 山祭지내는
비둘기가치모여사는 냇마음를 내도라가노라』

(103)

『복동이도 감발치고 짤밧으로다니는가
탄실이도 아츰저녁 쏑싸라 싸 다니는가
이웃집 봉사님은 아직도 밤제택일밧고
아, 그립어라 넷마을이여 내도라가노네!』
愁思纒綿하는 그의거름이여
쑴은 몃번넷재를지나건만 애끗는 발자곡은 아직도이곳에
목어리로흘너내리는 제피를 발브며가는 傷한사슴가튼

색시여!

『그래! 슷내 가버릴텐가
어느별을드듸고 저바다 건너서
어느구름타고 저산을 넘어서
더구나 저하늘 써도는 내옵바를 엇저고서

『엇저녁피운 香불이 그저잇다네

(104)

어제아츰 病床을 씨고도던 안개 그양갑엇다네
또 귀가에는『갈길이 업느니라!』하던마즈막탄식하던
소리뚜렷한데
아하, 옵바를 어느하늘에씌우고 내 가단말가?
胡地로가자니 부모가그립고
부모품에 머물느자니 漢室이불상해라!하든 王昭君가치도
가도오도 못하는 이거름이여
한발자곡에천리길묵고 되도라저 三秋가간다네

『어대로 가섯늬 아하, 어대로가섯늬?』

푸른하늘아래 햇발가치
사시장천 녹여주든 당신이
어머니의 젓가슴보다 더 따뜻하던 당신이
『바람은 차고 물결은은데』

(105)

이제는 애꿋난 마즈막긔도소리 터지며
안해는 지아비에 어린애는 지어미에 안겨우는데
마즈막 沈船의소리듯고도 그대는안오려는가!

『가다가 가다가 갈길도 채못거른채
길바닥에 주우린수리개에 가슴을뜻기는,
들노갈가 산으로도라질가 망설이다가 일생을막는
바다에낫다가 바다에죽는 갈매기떼가치
울다가 울다가 이몸이이대로 사라저버린다해도
아하, 그대는 이줄을 모르고지낼넌가!?』
죽은이와 갈나진이에 아모리해도
끈지못할 愛着을 안은채 삼삼 맴도는그여
아츰해는 背敎者의基督踏繪가치심술굿게 그머리를밟고
지나는데----

二

(106)

그는 외로운 그림자를씌을고
屍骨너흔 괴짝하나지니고서 집으로 도라왓다
몃해만이던가 들압 창포밧가에는 길게씌은 新作路
실개천에도 궁궐가튼 수리조합문
논머리에섯든 使道송덕비는 다 쌔저 머리만 데구는데
아름다운 溪流와 그풍경조차
道袍자락과함씌 멀니멀니 가버리고말엇다
아츰나주압길지나는 긔차소리안이면 아조이세상에서
버리운것갓튼마을되여서-

아버지는 그의 행색을보고서 아모말업고
어머니만 쌍에구을며 棺짝을안고운다
동생도 머리풀고 손펵치며울고

(107)

동리집에서 인사를올째 아버지는 겨우
『남다죽는데 쌀하나만 살어도조치!』하고喪服자락으

로눈물씻고
어머니는장 괴속으로 단오부터모아뒷다던 과일과 竹筍을
아츰저녁 산소에가저다 언즈며운다
옵바쓰던 책과사진도 그날저녁에 다 불속에살나버려지고

몃츨이 지냇다
집안에 아모말도업시 서로눈마조치기를 써려하면서
더구나 요새는 어머니는 초저녁부터 드러눕고
아버지는 論語책도다쌔리고 어대인지 나가버림으로
빈집안갓치 소리업시 몃츨을지냇다
그러나 색시에는 싼슬품이 날노 니러낫다
안즈면 習志野오 누으면 그날밤이라
矜持놉흔 그靑年이 금시에 나타나는 듯

(108)

밤낫 알수업는것에 허비고는 또허비고는 하는일이여!
엇젓타, 타박타박밟고가던 處女의가슴에 愁嘆이업섯스랴
비록그가 꿈으로싸 노흔『아름다운감욱』이라도
또 분칠한 男女의무덤이라할지라도
말밥굽 지나간자리가치 엇젓타 啼噓가 업섯스랴

날로 날로더 커지는 그의슬품이여
愛慾에서 차츰 苦痛으로변하는 그탄식이어!

三

그는 탄식할 이『絶望』에서 쌔서나려
그마을 小學先生으로가섯다
어린것들 대리고 이『白鳥나라난뒤가슴』을 만지려고
분주한 現實에서 밤낫 거미줄에엉켜우는 마음을 구해내려고
그래서 아츰이면 종달새소리에 씩여이러나
水天이 一色된 저 씃바다로 오르는아츰해에절하며

(109)

저녁이면 동리집에 애들모이고
달빗아래 이약이도, 노래도, 춤도,
野生的 흙의香氣를 마음껏 드리마시며지냇다

그는 차츰 이러한 생각을 하엿다
近代사람 더군다나 조선사람에게는 노래가업다

길거리에 오고가는 이들입에는 노래가락흐른적업다
쑴이업다, 詩가업다, 우슴이업다!
쌍파는이는 몃十代祖上째와쪽가치 종일묵묵히 괭이들고 쌍파고
나무쎄던이는 先山의나무를 十年하로가치 쎈다
그애비도 그도 그아들도 또 그아들도
마치 세상에 쌍파라 나무 쎄라 나온드시로
할머니 닭쪼츠며 그하로를 보내드시
이사람들을 그저 짬을씨서가며 깃붐업시 빗업시

(110)

파다가 파다가 긔진해서 호미자루베고 눕을때까지
작고파며쎄며 일생을지낸다 그러다가 쌍까지 선영까지 업서진다면 엇절텐지?!
『어머니여! 웨 나를나엇슴닛까?』하는 부르지즘도업시
『하늘이어! 영화는 남만 차지하게됫습닛까?』할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는 몃츨을두고 생각햇다 허굽푼이세상을구하고저
엇더케하면? 무엇으로?하는데 대해서

너무도 거룩한 영혼을 써나서 모다
덧업는 物質을 싸라 다니는
또는 미워하며 시긔하며 征服하며 쌔아스려애쓰는
마음에 뿌리박은 그더러운 生活을 곳칠가고
機械가, 工場이, 논드렁이, 돈이
쌔끗한肉身을좀 먹게하고 그도마즈막엔

(111)

영혼에까지 기어올나 버롯업는 짓을하는것보고
더구나 밋터전을 잘못닥아 상층건축인
오늘의 온갖藝術이나 文明이나 宗敎가 거짓것됨을보고서

이러케거즛으로된, 우슴과 戀愛와 꿈과詩歌를 쌔아서가는世紀를
엇더케세상으로서 내쪼츨가고
그리하는데는 몬저 소낙비에써는 병아리가치
조곰도『安靜』이 업서지내는 그무리들에게
『파우슷』모양으로 살려하는 意思를 던저줄것일가?
그러라면 化石된道德, 화석된제도, 화석된영혼의
어느구석으로 이힘이 나오게될것인가?!

『너의부모 형제 처자를다버리고 十字架을등지고 내뒤만 싸르라!』하던 예수를줄가 逃避를줄가 奴隷道德을줄가?

(112)

그래서『래일의, 장래의, 조곰뒤의, 保障』을줄가?
그러타면 도금칠한『예수』화상에서
양가죽의 聖經에서 구제의비치 나올것인가?
聖經어느장멧구절에서?어느례배당 벽우에걸닌그림짱에서?!

청총마를 타고 구름숙으로 쒸여나와
『내사람들아!』하고 안어줄『英雄』을줌에잇슬가
그러타면 력사에서 전긔책에서 낡은기와짱에서
또 超自然에서 非科學에서
밥과 戀愛와 詩歌-幸福이소사나올것인가?
그러타면 어느 南怡將軍을찻고 어느 車天子를차저야할 것일가?
아하, 대체 이世紀를가저갈손은 어대로서 올것인가 무엇으로? 엇더케하여서?!

(113)

處女는 제몸을알엇다 조고만 녀자몸임을알엇다

그리면서 홀로『초불한대면로마서울도제된다』하고이를갈엇다---

四

여러달이 지냇슬째, 習地野의밤으로부터 여러달이지낫슬째
일본에서 소식이라고 전하는말에
그날밤 군용차는 머리길숙한 청년넷을싯고
어느軍艦에갓다가 맛긴후 군함은 어느황구로다시 보냇다고
그뒷일은 아모도몰은다고 그는
밤을낫으로 여럿에게편지도하고 가도보고 아라보앗스나
종래 앞길이업섯다 아조 알길이업섯다 그래서
아직것 이세상에 사리잇스리라고는 밋지안엇다
육신을 써난 혼이 옴바와가튼길을 발부러니 하엿다
그래서 울다 울다 불상하게간 그를위해울다
가슴에 조고만 무덤을만들고

(114)

어머니 옵바무덤압에 과일드리드시
녯날의 다스한 긔억에 향불을피여 드렷다
속절업는 꼿들이어 참으로
어느이리 어느 짐승이라도 봅고지내게 길가에핀
꼿들이여! 불상한꼿들이여!하고울면서

세상을가리고잇던 面沙는 이소식이잇자 벗기기시작햇다
처음 그에게 留學의길을 쌔앗고
그다음 사랑하는 骨肉의옵바를 쌔앗고
그리고 또부족해서 목숨가튼 愛人까지 다려갓다
이러케 靑春의 愛着을 모조리 글거갈때
뒤에는 沙漠뿐, 어웁고 찬 永山뿐
全世界는 無情의 化身으로 보엿다!
제가어릴때는 제가 이러케 喪服입고 울때에는

(115)

저보담 더 심한 苦難밧는이 엇지만흐랴
구제를비는 數百萬 인간이보인다 數千萬孤兒가 눈압헤 보여진다

아아 全人類가 受難하고잇구나!
全世界가 물 불속에 잠겨잇구나!
그는 이제 愛人일홈을通해서 새로운 세상을보앗다

五

그러게오래지내는 속에 또한 봄이 왓다
얼마 뒤 지붕우에파---란 藤너출이 기어오르며
조개를 업허 노은듯 총총드러선 마을집집이
봄안개에싸여 붓으로 그린듯 모양내고잇슬째
겨우내 추어떠든 白楊아지도 개천가 실비둘도
산도 물도 바다도 하늘도 모다 빙그레우슬째
봄의노래를 부르고잇슬째
눈우에 새로운 봄하나 왓섯다

(116)

더구나 이찬마을속에도 싸슷한새로운 봄날이왓섯다
그것은 處女와 그학교청년교사 사이에
約婚이 성립되야 하늘이약속해준 宣誓을함이엇다!

엇재서? 突然히 웨? 청년은엇저고 결혼함인가
아 背心만흠이여! 녀자여, 라할가
夜叉가튼『이부』의 直系라할가 恨스러운일이여!

六

녀자는 결국사람이엇다! 그색시도 결국녀자이엇다!
그는 제고기를 익이지못하는 단순한 한개의 녀자이엇다!

앗가까지 색시는 엇더케하면 일만사람에게
깁붐을줄가 우슴을줄가 하는 큰일을생각햇지만
잇서야할것이업는슬품만치 더 큰 설음이업다고

(117)

이슬픔업새는 큰일을 밤낫 애쓰고 생각햇지만----

그러나 이일에 形體를 또 일홈을부치기전에
그는 너무 사람이되엿섯다너무약한女性이되엿섯다발드일곳업는
그째 그의 肉體는 處女美의 極致라할가

그의 愛慾은 탈대로 탓섯다
색시의갓스물은 인생의꽁봉오리, 보는이도 깁부러니와
꽃자신도 한끗 날아질것갓흔째라고
그의몸과마음은 成熟할대로 성숙해젓다
이제는 보름달 지나도 압서도업는 단하낫보름달
종달새 잇슬우에 춤출째
그에게는 사람의 香氣가 그립엇다異姓의향긔가
그의肉體는 아츰저녁 强烈한 愛慾의 불길에 타지면서
大理石가튼 살결조흔 그낫첸 갈퀴가 사지장천 오르내리며

(118)

더구나 한번사랑하는이 이른 영혼우에는
暴風이불며 구비 구비 홉마다 패여간다
그는 어느 女王가치 毒死를시켜 온몸을 물어뜻게하고 십헛다, 차라리
肉이란 무엇인가? 이러케그째문에
生命에까지 生滅의 全作用이부터지는것가튼 肉이란?
戀愛의免罪符란肉인가 영혼을 더럽힘이란 肉인가
아름다운 사랑의 탈을쓴 罰의씨란 肉인가?

아아, 그는 저를못이기는 그색시는이러케 부르지젓다!
『肉이여 깨끗한영혼의 쟁반에 담긴肉이여!
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本能을속이는 처녀를구하여 줍소서』하고
肉은 生命이다 전체는안여도 가장중요한 생명의 要素다
性慾의 否定은 생명의 부정이다 性慾의 輕蔑은 자긔자신의 輕蔑이다

(119)

그것은 創造力의 權化이다, 肉이란 創造意思다
어느한때는肉이 生命의 리듬을 支配한다
더큰, 더깁흔, 더조흔, 世界로나아가는 生命의律動이
性을通하야 생긴다! 나아간다 性에 잇글니어 나아간다
누가 깨끗치못하다하랴, 누가 罪되는일이라하랴
『아, 그쟁반을바드라 모든색시여 동무여
사람인채로삽시다!
조선사람에게 허락된 오직한가지 자유스러운 이幸福을 마시며 그로나오는 우슴을 찻습시다 사는 뜻을 밧읍시다!』
그는 제몸으로피부의구멍구멍으로
噴水가치 올니솟는 이愛慾의 불길을보앗다

몸우에 살우에 벗티고섯든 火焰의기둥을
그래서 그는여기에일홈부치고 形體부치기에 더급햇섯다

(120)

그때마츰 그학교에 엇던청년교사
熱熱히 그 情熱的女性에 사랑의선물을 바치려애썻다
그는 불붓는마음을 詩로, 노래로, 말로
直懺하게 告白햇다 그리고 사랑을구햇다

색시는 이 청을 드럿다
제의 愛慾과 또 習地野의傷處를이즐가고하는 利己的打算우에서
그러나 어써턴교사는깁벗다, 둘은 幸福한꿈을 꾸엇다!

七

몃칠 뒤 봄은 무르녹아
『밧카스』는 산이고들이고 草綠비질을하여
새털이고별의찐이고모다 씨서낼째
靑山은 나귀타고 錄水는 정마꾼되여 푸른하늘오르고내

리고할째
온마을사람이 祝福하는속에두남녀의

(121)

一對의夫婦는 創成되엿다
마을사람들은 모다 後行꾼이고
모다 새신랑이고 새색시가튼 깁붐속에
추석명절 단오명절보다도 더 요란하게 깁부게 이날을 지냇다
이러한속에 人類의法則은 씃씃내 수팔蓮을노코 遂行되엿섯다

하나는『안해』되엿다!
하나는『남편』이되엿다!
그래서 둘은 긴 짐을 풀어노코
오랜만에 놉흔뫼쑤리에안저 발아래흐르는 下界의 溪流를 보앗다
둘은 우섯다! 둘은 즐거웟다!

八

두번째 키쓰는
두번째 抱擁은

(122)

그리고 모든 두번째 宣誓는
열흘이지낫다 스무날이 지낫다 한달이 지낫다
남편은사랑햇다 남편은 너무사랑햇다
人生의온갓 法悅를 안해를 통하야 엇으려햇다
인간의 裝飾을 오직 사랑으로 만들려하엿다
그는 자긔가슴에『안해』라는 法堂을짓고
아츰저녁 참배긔도드리는 聖徒이엇다 道僧이엇다
一生두고 香불만 피우고안젓슬----
쑴마다 天使에 옹위되여 하늘로오르는
『영원의, 無限의, 地上의』王座로오르는
안해의 幸福을 진심으로 빌면서----

九

그러나 날이가고달이갈사로 그안해는 가슴에서『幸福』이

눈녹듯스러짐을 깨달앗다

(123)

남편의 사랑이란 자긔에게는
北氷洋어름을 녹이는 太陽만도 못하게
熱과 빗이 업는 것으로 보여젓다
지금까지 한아름안어다 제길압헤 쌔려준다든
고은 五色꼿은 제각금 頹色하여 수지쏘각이되고
白蛇갓치 탱탱감어주는 肉體도
香그러운 것이 아니엇섯다!

그러부터 그에겐 우는날이만헛다
모든 希望이 즐거움이 차츰 灰色으로 변하여지며
그는 後悔의 눈물에 가슴을 씨젓다

그는結婚으로 사랑의 愴痍를 곳치려햇다
그마음은 肉에 陶醉하던 瞬間만은 효험이잇섯다

(124)

그러나 날이갈사록 習地野가 생각낫섯다
生命에 烙印을밧던
수천受難동무속에 불洗禮밧던 그 習地野가
아하, 열골길은 모다『로-마』로 흘너간다던가!

十

닭이 두홰채 울때에
고요히 감긴 남편의 팔을푸러노코는
몸을빼여 夜精을 싸라 들로나가는 女人이여
잠옷자락이 이슬에젓기며 마루를지나 들을지나
그압 실개천가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十二星座를향해서 두손을 마조부비며졀함이어
새파라케 절닌나츤 重病人가치도
눈물이 두루루 어울닌 쌈은 썩은 림금쏘각갓기도
귀쑤람의 우름조차 씃첫는한밤중에

(125)

아, 냇가에 人魚가치 서 무엇을 哀訴함이련가

남편이 어서 이몸으로 써나달나 빌민가
『둘재번!』이라는 宣誓에 良心이붓그러워 그렴인가
아하, 어대서『죄의갑은 죽엄이다!』하고 외치는 듯

그는 얼마를 잠잠하고 잇다가
두팔로 별을 안을 듯 몸을탈며 굿세게 가늘게
『하느님!』하고 부른다
그서슬에멀니陣첫든 숩풀이 귀기우리는데
다시『하느님!』하는소리 萬賴를깨칠째 그의입으로는 눈물석긴 한마듸『하느님이여! 제남편을 사랑케해줍소서!』
애연한그소리 멀니멀니 밤공긔를 울니며지난다
맑은 밤바람은 永劫에서 永劫으로 휘파람치며가는데 마즈막 그의
『엇더케하면 다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생김닛까 네?』

(126)

祈禱갓기도 하소연갓기도 哀愁갓기도한 그말씨어!

아하, 긔도할사록 탐탐하여지는줄 알면서도
밤마다 밤마다 되푸리하는 이祈禱여

그에게 오직 한가지 남어진 애끗난 慰安의 祈禱여!
이가슴을 엇저려는가?

[六] 피 리 부 는 가 을

一

(127)

웃고, 울고, 부르짓고, 써들고, 싸홈싸호고
눈만깨면 밤낫으로 경영하는 인간만사도
하늘의 선우슴압헤는 아츰안개 풀니듯 속절업슴인가
날이갈사록 색시의긔도도『斷念』의 둥주리속에 잠겨질째

하로는 삼복더위를 양산으로가리우고 색시는
외로히 쌈을씨스며 학교로 도라오는길에 나섯슬째
길가 수양버들아래, 그늘밋헤 낫잠자던
늙은로인이 그제야겨우 木枕을툭차고 이러나며
멀니 서산을향해 긴하품을보낸다, 배가죽을 썩썩 글그면서
그겻헤는 두다남은 將碁판

(128)

楚漢두놈이 눈을 부르대고 싹마조섯는 將碁판
또그겻헤는 靑龍刀를 든 갑옷입은장비가

赤壁江에서 조조의군사를 뭇지르는 그림그린
三國誌冊장이 바람에 뒤적거려지며 잇다
어대선지 청포두부 써는소리
늙은 총각 팔쑥가치 긔운잇게 울녀들니어 韻律을마추는듯
그는 입맛을 쩍쩍다시다가 다시드러누어, 초성조케
『조조가 대패하야 적벽강에……』하고 외운다
버들은 이러게 관운장비를 불너도 썻덕썻덕
츈향을불너도, 심청을불너도 가치 ㅅ덕ㅅ덕
이래서 버들과 맛장구치면서 보내는 긴여름날
이제는 선화당도, 과거마당도, 經書百卷도, 모다 거지발싸개되엿스니
(WWWWWWWWWWWWWWW한행미확인)

(129)

이러케 쑴속으로 차즈렴인가, 낫밤쑴속으로----
아, 쑴만 먹고지내는무리여!
그느림느림한 節奏를드르면 십년은 더 長壽할것가트니, 지나간해의 追憶만으로 사는그무리의소리또 바야으로 펴지려할때

그때 색시의눈에는 풀막집압헤

장날가치 웬 사람이 만히 모여선것을보앗다
각금 우워-우워-하는 씨름판매기가튼 소리들니는---
그는 갓가히 이르러 보려햇스나
엇지도 사람이 모여쌋는지 그양 도라지려할째
『선생님!』하고 누가초마자락단니는 것 잇섯다, 그는 나어린 남학생이라
『저긔 노름잇서요 교장어룬가튼이가 왓서요』
『호호, 자미잇스면 어석가구경하오 에,』하고 돌려보내려햇스나

(130)

『서울서 온이가 쌩쌩이켜요 가치가세요?』하고 쎄쓴다
『서울서? 쌩쌩이?』그는 일종호긔심에 끄을렷다, 그러나
그대로다시 도라지려하다가 少年에게 끄을녀 그곳으로 갓섯다

그속에는 엇던 더벙머리 청년하나
강낭에 비스름이지대여 夕陽을바더가며 바요링켜고잇섯다

二

째-ㅇ 쌩, 찡-찡-
맥업시 드리운 여름하늘을 울닐째
씌꼬리노래와 종달새 갈메기, 부헝이, 기럭이
모든소리의 精粹들쏩아 도레미파에 要約된
그아름다운 音響이 뭇사람의 가슴을지를째
버들그늘의앗가로언도 冊을집어썌리고 달려오며
(WWWWWWWWWW미확인)이인채, 안악는데부짓갱 쥔채

(131)

모다 귀를 기우리고 魂의 舞踏에 참여한다
폭포갓치도 촬 촬 흘너내리다가
五宮圖化十四數보다도 더妙하게
알수업는 나라에 노래가락을 빗그러맴이여
모다덜 조와라 무릅을 툭 친다

색시도 놀냄으로 그소리를 드럿다
한넷날 어느날에는 上野公園욱어진 숩사이 거닐째

美術學校 담장너머 흘너들니는 아름다운소리
알수업게 가슴속 白鳥를쒸놀게 하더니만
그래서 生活을 豊穰하게, 인간의잔채상에안는 깁붐을주더니만
지금이러케 적막한곳에서 듯는그소리는
더욱도 인생의 적막을깨닷게하는 듯
넷날에 썰네면서 그의눈은 분주히 청년을지켯다

(132)

청년의몸은 초최해젓다 낫은 蒼白해젓다
더구나 그의버슨발은 나무밧 지나온 듯 피에저젓는데
그래도 고요히 귀기우리는 村民의쎄에 싸이여
로마병정을압흐로 幾何를풀고안젓는 希臘哲人과도가치
몸을쌋댁안하고 바요링 줄고늠이여
으르릉하고 旋律이분주히퍼질째
노래가 여러사람이 가슴에안겨 啄木鳥가치 톡 톡 톡 쏘슴이여
失樂圓의題材에나 쓸것가튼 人物들이 魂의나래에 너울너울 젓게함이여
모든이에 滿足하는 듯 빙그레웃는다

한참동안 조심스레듯던 로인들도
(₩₩₩₩₩₩미확인2행)

(133)

『으흥! 帝力이 河及於我哉인가』하고 조라와한다
이러케모다덜 못견대게 깁부어할째
『아직 이백셩에게 춤이잇구나!』하고 웃는 듯, 그청년도 한씃滿足해한다

三

『재악골 채봉이 남의집 사리 갓단다
쏭싸던 꽃분이도 마을건너시집가고
천자닑던 금복이도 긔생으로 팔녜갓다네
그러나 그이는 날기대리고 잇스련만----』

『세상이 무졍한가 이몸이 속절업는가
물결에 써 다니는 쪼각배
해매고 다니는외로운 運命의 쪼각배
나는저별이 자줄째까지 써난일밧게』

(134)

다시 그의노래 쌩쌩이에 물여나올째

모든세상은 꽃밧으로, 大地는 草綠벌로변하며

더구나 범나비 봄을물고여럿의가슴을찻저들째오직꿈으로변하엿다

그러다가 하늘의啓示를밧는듯 敬虔하게 모여선 여러사람을보고

무엇에 감격한 듯 激越한가락으로

『애들아, 아직두 자늬

城門은 열어젓첫다 모든城門은 열어젓첫다

이제는 黙示錄의 네 騎士가올째되엿다, 애들아, 아--』

하고 부르자 어느피투성이된 超人이

『길은 저쪽이다! 빗은 저쪽에잇다!』하고 외치는 듯

그리다가 쑥슨치면 고요하야모든세게가 새로밝아가는

(₩₩₩₩미확인)한층소란과 더한층 어둠에잠기는 듯

(135)

靑年은 矜持놉은 낫츨드럿다

슬픈, 絶望的情緖와 깁분再生的感情에 몹시 旋律치는
긔운잇는 그눈빗이여, 힘잇게 다친입살이여, 貴族的코여
길게 기리시아 彫刻가치 내핀 목어리여, 쓤꾸는듯한몸
전체여!
그때『녀자』는 깜작놀냇다, 그리며
앗! 소리 한마듸치고는 앗득하엿다
웬일일가? 웬일인가! 몹시설네면서
그는 단한숨에 그대로 내다랏다 치마자락으로 낫츨가리고
온몸이 불덩이되여 작고 내다랏다 어다가어대인지까-
매저서

그는 習志野의 청년이엇슴으로! 죽엇다던-

四

『아, 넷날의거리여
속업는 文明에 마음깨끗한이들이 울고지내는저자여』

(136)

쌍도야기 파라 자전거사라고 다니든 동무잇는 마을이여

그래도 낫츨파뭇고 쎄쓰고십흔 넷날의 탐스러운거리여!』
하면서 熱熱한 愛慕와 憧憬을가지고
청년은 죽을고생을하면서 군황을쌔서 석달만에 고향으로도라왓다
하늘로오르는 鶴두룸가튼 太白山은
넷날과가치 구름을쓰고 잠들어잇고
압내강변은그래도 세상에드무던 아름다운 風景을얼마가지고잇는데
고향은 守墓하는 과부와도가치 정황업시안저잇다

여기는 都會의 觸手가업섯다
아직것 해를가리는 써-먼 煤煙과 밤낫쑥딱하는 쇠마치소리와
또벌이 둥주리가치 손빠닥만한곳에
千이고 百이고 간간이굴가치 쑬녀논 여러層建物과
동그막질노름가튼 피와범을잡아녀흔 動物園과 博物館과 標本室도

(137)

오직누구나 몬저 이러나면 해를보고

그래서 미나리골로, 버섯골로드나들고
골압히면 도라지쌔리 싯처먹고 허리절니면 씀쑥쓰고
부자, 가난한이 늙은이, 젊은이모다
제일을 제각기하며 놀고먹는자는 도적이란 社會律로 協同社會를 이루고잇는
그래서 이속에서 그네는온갖 藝術과科學과 哲學을파가지고잘도지내는----

그러나 이속에도 적은 破壞는 잇섯다
업던신장로 새로생기고 업던『풋쌜』이 공중에쓰고
제가 이웃마을 書堂에갓다가
夕陽녁 책보둘너메고 헤헤하고 防築으로넘어설째
저쪽실버들아래 낫뿍히든 나물시치 색시

(138)

이제는 구두신고대문간에서부터곰의소리치며달녀든다, 밤가워라고
수접어 말못하고 버들가지 쑥썩든 그風情은 어대로?
산에가두 두세밤식자며잇던 풋나무 꾼들이
낫날에 녹쓰는줄도모르게 색주가집 차저다닌단다

소는 로인이몰고 쏭은할머니 싸고
아하, 文明이 田園을 마섯다
女學生이마을風景을 책보에싸가지고 留學을 가버렷다
그는 한씃허굽푸엇다!

五

동지와의 언약을 싸라
그리다가 그는 이내 서울에 올너왓다
그래서 별빗에낫츨파뭇고 어느일을 모사햇다
수표교다리에 고양이 죽엄이 노이고
(WWWW한행미확인)

(139)

至善을위해서, 正當을위해서
목숨을위해서 력사의진행을위해서
거미줄이 첨아를싸고도는 빈집터에서
모기소리만한 속살거럼으로, 그래도 피투성이되여 애썻다, 싸웟다, 울엇다, 획착햇다
늙은어머니의 드부장사, 어린처자의 복어알줏기 보고서

幸福을빼앗는 모든 것에 인년슨을 생각을하엿다
초불이몃번 탁자치는바람에 썩구려젓든고
쥐엿든펜이 몃번 써는숀길에 글자를 못이루엇던고
그러나 마즈막엔 한나의『카레---市民』이업섯다!
한나의『에스타-슈』가 업섯다!

그는 모든것에 失望햇다

(140)

모든 虛僞와 懦弱과 假面에 울고울고 또울엇다!
그러다가 다시 헤를씹으며 혼자말로
『내가「에스타-슈」되자! 내가 한 대의 촛불이되자』하엿다

사형밧은 탈옥수도 제고향찻는법이라고
그는 모-든 이悲壯한결심을하고나서
마즈막 習志野의색시 차즈려나섯다, 이세상에서 다시두번 못볼그를맛나려고
그래서 지금 이풀막집까차지저와 쌩쌩이켯다, 愛人부르는-----

六

저리 압내강변에 다다를째 철축화 꽃피엿네
힌 구름속으로 힌나비 한쌍이 너울너울날니는데
꽃으로 들로 草綠밧으로 어엽부게도나는데
(₩₩₩₩한행미확인)

(141)

멀니 초가집웅에 塗金칠한
十字架달닌 敎會堂이버티고 잇는것보고는
녯날의『니코라이』회당이 갑작생각나서
고요히 합장하며 색시여!하고 불너보앗다

마을에드러서자 가고오는 사람보고는
모다 그의 아버진가 그의 옵바인가 반가웟다
더구나 구두신고 파라솔 든이보면!
밋칠듯뒤놀며 색시여!하고 두세번불너보앗다

어느동 몃통몃호가 그의집이던고
어느구비 어느골목이 그가다니는길이던고

무드렁, 공재왈 얼화만수-가갸거겨속어느노래가그의소리던고

(142)

아하, 애타는 이마음이여!하며 다시색시의일홈을불너보앗다

그는 이러케 焦燥와 親和力과 熱望으로다름질하야마을에와서
강낭에안저 쌩쌩이켜면서도
금시에 군중속으로
『에그, 이게 누구세요!』하고 놀나뛰여나와
안아줄 그색시를기대렷다, 기대렷다!

그는자로 눈을놀넛다
목이쉬도록 노래불넛다
그러나 사라진구름짱가치
아모것도업섯다, 참말 아모것도

그는 가벼운 슬픔을품고
(WWWW미확인한행)

(143)

아하, 모든일은 쑴이엇다! 깨어진 鍾소래엇다!

압내강변과 敎會堂볼때와 골목에드러설때 업던대답은 영원히업는 대답이엇섯다

『너는갓구나 아, 너는갓구나

내가슴속으로 사라저너는 갓구나

내목숨인『넷날』에서 아조가버렷구나

『너는 은앵나무에 네성과내일홈싹이던 그일조차 버리고갓구나

너는어느날 진흙에싸진채 숨이끈어질 나를버리고갓구나

너는 사랑이 모든일을이룰 그마당에서 써나갓구나

『너는 「옵바라고 부르지말일!」할 때 웃더니만

너는 「내가슴은 한분밧게 더업서요」하더니만

아하, 내행복을, 내청춘을강그리가지고가버렷구나』

(144)

『너는 남이안해되엿다고? 잘도 내가슴에 못을박고서!

너는 세상을위해 일한다과? 더큰일을 뭇지르고서!

대체 어대로갓느냐, 쑴에조차 자최업시 이러케도가드란 말이냐?』

그는울다 밋칠듯울다
모든 絶望이 가슴을 째다
마즈막 칼을품고 그집에뛰여가고십헛다
야채여! 여호여! 귀신이여! 하면서 그를 그의살을뜻고 십헛다

그는 돌각담에 안자 밋치듯 부르짓다가, 마즈막엔
그러나 참아 그이 幸福을
『인제야 내봄이 읏고나!』하고 안젓슬 그의幸福을 참아헐고십지』

(145)

안엇다, 참아 헐고십지안헛다!
그를 생각하던 그마음이 헐고십지안엇다!
한째는 全人類의救濟와 對比하던 그의생명이언만
헐고십지안엇다 그러타! 나는 그를 구해야하겟다, 人類를 救하기전에 그를구해야하겟다!하드시

밤내 별빗에 고효히눈감고 잠자든 그집과그마을돌며울다가
마즈막까지울다가그는 아모말업시 마음을써낫다-

七

『예루살넴』聖殿을향해 불근혀를 너울너울하는악마가치
소리업시 왓다가가버린
이청년이 단녀간뒤 몃달만에 마을에는 奇怪한일이생겻다
그것은『색시』가 아해를나앗슴이라
사월에 시집와서 칠월에 애를나앗슴이라
貞烈夫人이라고 써모시는 그『색시』가, 女敎師가

(146)

긔적가치도 천만이외에 아해를 나앗슴이라
平和스럽든 마을은 갑짝 란리판이되엿다

벌서 말성조와하는 이웃집女子는
『신식녀자들은 별공부 다하고 다닌다오, 석달만에 애낫는법까지!』
『남편하나는 집에두고 하나는 달고단닌다오!』

향도 로인들도, 넷날이면 棍杖이다 하면서
『흥, 동리가 망할나니 별요물이 다난다!』한다
어린학생들까지『야하, 선생님도 애를낫는단다!』하고 써들며 온 마을사람이 모다『색시』라는 관역에살을 전우는 射手가되엇섯다

남편은 더욱 슬펏다, 분하엿다
가장사랑하는 부인이 不貞이엇슴으로!
세상은 悲劇으로도엿다

(147)

인간이란 이悲劇을 만드는광대들이다, 더구나自己는
그래서 그는모든 幻滅에 괴막히게울다!
그러나 세상에는 悲劇아니되랴 아니될수업는 너무만흔 悲劇이 잇슴을엇저랴
男便은『여호여!』하고 춤뱃고 오네가네말업시 나가버렷다

또아버지는, 소학과烈女傳으로다진 아버지는
몃츨 食飮을廢하고 아라누으며
『이년! 이죽일년!』하고 꾸지젓다

어머니도『우리가문에는 잘못죽은 구신도업는대』하고 쌍치고울며
모든슬품이 옵바白骨안고 도라오던날가치 뭉게 뭉게 써오를때
그는참다 참다못하야 갓난애를업고
이마을을 써나기로 결심햇다!

(148)

어대서또한번『죄의갑은 죽음이다!』하는 듯

밤새도 짓드른 야밤중에
외로히 외로히 산빗탈도는 나어린 두母女여
새벽별가치 장차 사라질것가튼 두母女여
산은여전히 푸르고 물은여전히 맑은데
어느산, 어느물건너 어대로가단말가
그의 차츰차츰 사라지는 모양을보고
집식구는 모다 목노아 울다!
그러나 그뿐이엇다!

멀니 신장로 나선그는

새벽바람에 치마자락 날니면서 나즈막가치
『죄는죄대로 하늘에빌고야말니라!』 외친다

(149)

『간다, 간다 내 도라간다
온곳업는 이몸이 갈곳도 업시
바람을싸라 지향업시 내도라간다네
어느날바람이 문풍지를 물고쓰드면
어머니여, 그게 이쌀인줄 아라주소서-----』

[七] 昇 天 하 는　青 春

一

(151)

해를견우고 활살을 노아라!
대체, 얼마나만흔빗, 얼마나 만흔熱을 가지고서
이세상을 비처준다는가, 덥허준다는가, 그太陽이
봄이른 인간에는 잇는둥만둥한---에익!어서쏘아 버려라

하늘을향해 창을 던저라!
제 얼마나만은 良心 얼마나만흔 道德을가지고서
인류를 건져준다는가 인간을바로잡아준다는가 주체넘는 하느님이
피흘니며 복수하는이에 속임수하려드는----에익!어서 찔너버려라

白骨안은 해와하느님이

(152)

무거운 제 罪惡에 寸步를 옴기지못하면서도
다리녁까지왓단다 우리잇는 다리녁까지 왓단다
건너만서면 그때는 우리그림자 이세상에는 업서지는날이다, 얘들아 어서 다리에 불질너라!

누가 이러케 고함지른다 누가 이러케밤낫 웨친다!

이소리듯고 색시는 그길로 서울에 올너왓다!
하느님이 피뢰하리만피 천만번빌엇고
해살이 눈 씽그리만치 밤낫 절하엿건만
모든 것은 여우잇는째일이란다 작란감가튼
챗직에 맛는자에 바위에깔니는자에
하늘과 호화롭은 太陽은 춤추는손을 빌너주지안는단다!
그제야 그는 저를보앗다 제거름을살폇다

(153)

자욱 자욱 옴길사록 不幸의 쪼처오는 제거름을

그가 처음 일본류학할째 赫赫한幸福이 그가슴을 차게

하엿다
그가 진재에 불셰례를밧을째 일시디옥에 가친듯하엿지만
다시 그청년을 그속에서 차저낼째 幸福한 몸이되엿섯다

그러다가 하로밤에 愛人을 쌔앗길째
그 뒤 쳐녀가 시키는 本能에 또는 打算에 둘재번 宣誓를 할째
그러다가 性의滿足에 魂의傷處를 맛기려하다가 너무 距離 먼 것을 깨다라질째
또 새로운 生命의分身이 가슴에 안겨질째
그러다가 오만한道德이 세상으로 쪼처보낼째
한번식 한번식의움죽임이 잇슬째마다 불행이 달녀들엇슴을알엇다

(154)

그는 이제야 참말 제거름을 알엇다!
이대로간다면 이가티 時時刻刻으로 간다면
제자신은 쏫기여 쏫기여서내종에는 제自身을 이를것을

그에게는 이제 최후의 한거름이 남엇슬뿐

그것은 本能에 충실할수도업고 道德에안길수도업고
愛人과 名譽와 幸福을 가질수도업게된
무엇인지 날마다 빼아서가는 이세상과 햇빗하느님에
활을견움이엇다! 챵을 던짐이엇다!
그래서 새로운저를 만듦에 잇섯다!

그는 청년을 이즌것이아니엇다
오히려 그를잇기위해 敎師를 방패로썻다
그러나 깨끗한魂의 反逆에울엇슬 뿐이엇다

(155)

그는 괴로워 괴로워 집을 써나려애쓸째
우연히 청년이 사라오고 아해가 나앗슴이라
그러타고 그때 그를맛나 그가아직세상에 잇는것알기때문에
이괴롬이 더 커진 것은 아니엇다
그는울엇다 울고울고 또 울며 고향을써낫다 써날째 세상을원망하엿다
父母와 愛人과 希望과 幸福을 빼아서가는이 세상을 이를갈며 원망하엿다

그는 이러케불넛다 세상에 이러케 맹세하엿다
『복수는 승리이다! 나는 마즈막까지 복수하리라』

二

그런데그가 생각하는 승리의내용이란 넷날의 愛人품을
차즘이엇다
世上이 웃지안는, 지금가튼 太陽과하느님이업는

(156)

그런곳에안저 노래부르는 愛人의품막을다시차츰이엇다

『어름쌍 놀질하고 가는별
나무눈터 노으며가는 봄
그봄이여 그별빗이여 이몸에 다시 와지이다』

엇저면 겨울이갈가?
엇저면 나무눈틔우는 봄이와질가? 그러함에는
위선 몸을씻자 이 더러워진 몸을 씻처버리자
謝罪하는 물로 불로 이몸을 손톱눈까지 쌍그리 씻처버

리자
올타 그이에게 사죄하는한길이 승리의길섇으로 허락되엿다!

그는 청년이 서울 어느 비밀결사에 몸을바치고 잇는줄 잘알엇다
밤을낫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애쓰고 다니는줄 잘알엇다

(157)
그러타면 그거룩한 일에바치는 그목숨을 도아드리리라
그의 생명버리면서 하는일에 비치되리라 비록반듸불마치라도
통계표만드는데 하나모자라는 백개 두개골이라면 내가 그하나되리라
어느것의 배부름이 부족타면 내피를 드려보리라 또勞力도
어느긔게 아직도 도라감이부족타면 내등곱즙을 썹아지름되리라
그래서 사죄를 형식으로드리지말고 힘으로 목숨으로드리리라!

『올타 나는 싸닥돌이되리라
비석을바치고 섯는싸닥돌이!』

원악 文明이란 비석이다 싸닥돌우에 선비석이다
머리는 구름을 이고잇다해도 발은 瓦石을 드듸고잇다
모든 두 개골을 드듸고션 문명이여!

(158)

새벽부터 쓰레기통 터는이엔 公園이업다 꽃도 나비도 아모것도
또 문깐에안저 분주히드나드는 紳士淑女의발에 신발치처주는 이엔 만찬회도 무도도 노래도업다
광주리에 분주히 과일쓰더담는 園丁에는 배도 果實도 風味도 田園도업다
더구나 아츰나주 阿流酸으로 돌기둥닥는이에는 피아노도 안락의자도 風景畵도업다
문명은 눈치빠른 거지가치 애초업는이에는 오지도안는단다
도로혀 그를 밋판으로 드듸고서기는하면서도

三

이비석이 만허질사록 커질사록 세상은 행복스럽단다
그래서 천이고 만이고 구벽마다 비석이 서질째
낡은다락에서 쑥싹하는 독갑이 쎄가치
비석은 저이끼리 피흘니고 싸홈싸흔단다

(159)

금방 히히하고웃다가 手兵인 大砲와 총칼을시겨
이놈이 저놈의 배창을지르고 압놈이 뒷놈의 눈깔을썹는다
피가 激流되어 흐를째
하하하 하고 얄미운 우슴이 구비구비터지나니
그우슴이 피어날째 인간에는 疫病이 터진다
호렬자고 혹사병이고 매독 림질 미치광등이
그래서 나무쌔리란 쌔리는 다 캐어藥되고 골목이란 골목마다 삼단가튼 避病院이 드러안는다
그쌘인가 戰爭이란 火災를부른다 그쌀간 불비치 너울너울 저자를스칠째 金殿玉樓도 朱欄畵壁도 속절업시 재속에파뭇친다
그제는 飢餓가 차저온다 아비는 아들살을 쓰더먹고 지

아비는 안해 쌔를 글거먹는
아 그제는 죽엄이 드러찬다 길바닥에 루루히 흐터진죽엄이
그째 回甲宴이나 버린드시 이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160)

文明은 조와라 손벽치며웃는다!
올타이우슴이 더커지기위하야 이 잔채상이 더훌융하게 채려지기 위하야 색시는 이제 제몸을 바치려함이다!
『애들아 어서나를 五車를해라!』하드시로
잔채상밧는이와 잔채상우과일될수박게업는 이세상에서 後者를취하려함이엇다

四

그는 처음 담배마리회사의 女職工으로갓섯다
해가 아직도 안개속에우슬째
칭둥 챙동하는 긔계소리 미테서
말고 말고 또한대말고 한갑만들고 한궤너코
---그러나 이도 세상을 입히는 襪衣를말미라하면

게서 美貌가 탓이되야 감독의성화에 쪼겨난뒤

(161)

그는 다시 어느집 針母로갓섯다
닭이두홰채우는 야밤중까지
호고 호고 또 사매를 홈이여
----그것도 사랑하는이 싸홈옷을 호는가하면

그집 도련님이팔남봉으로 도적루명쓰고 또 쪼겨난 뒤
그는 다시 어느 대감집 행낭어멈으로갓섯다
까---만연긔속에 장단지 쑤지고 마루바닥 닥는일이여
---그러나이것도 잘먹는이 마즈막가치 잘멕이는일이랴면

세월은 흘넛다
일년이지낫다 봄도 두봄 여름도 두여름
사랑의선물인 어랜애는 헷적헷적우스며 기어까지다니는데
외로운밤 겨울바람이 문풍지을뜻고 지날때마다

(162)

다람쥐서래에 고향의꿈을 깨고난 한밤중에
고요히 팔에안기여 단꿈꾸는 어린애 아니엇던들
그는 버러서 發狂안햇스랴 벌서 복수를 닛지안엇스랴
참으로 愛兒만은 그의 하나님 그이 해빗 그의 사랑의 銘牌엇다
땀나는 괴로운일이 온몸에 絶望의물결을뿌릴때라도
온갓 誘惑 온갓 掠奪에서도
오직 愛兒만은 목숨으로 지켜왓다
그는 몃번 어린애의 門을지키는
한평생 지키고 지낼나는 騎士되려햇스랴

『바람이 분다 돌각담 익씨쑤리를쑤지며
가을바라밍 잘도분다
익씨에야 무슨 영화야 잇스련마는---』

(163)

아하, 銀河물가 건너든 北斗星이사라젓다네
沙洲의 놀젓는배 나타나며
푸른하늘 닷던 새벽별이 사라젓다네

그리다가 엇지뜻하엿스랴 알턴 어린애는
세상의품을 막차내버리고 사흘만에
힌구름속으로 나래를펼처 달아나버렷다
어머니의 氣絶 차라리 죽는양을보네 마네하고서

세상에 슬푼일 한두가지 아니련만
젓곡지물고 아양부리던 갓난애기 죽음에 더하랴
어미는 하늘을 향해 울다 밤낫울다

『잇슴』에서『업슴』으로감이여

(164)

그사이는 몃자 몃치 되는가
어느달어느날에 써나면 어느째에 가지는가
그곳에는『두려움』이잇는가?『모름』이잇는가?
예가치 사라서 아버지못보고 지내는 장막이잇는가?
온갓 영화를 다 쌔앗긴 母性은
몃칠을 食飮을 全廢하며 가슴을두다리고 통곡하다

쑴마다 생시마다 虛無여 虛無여 大虛無여하고 부르지

즈며 울째
灰色 구름 하늘 한쯧으로
六花가튼 구름송이 올올히 내려오며 펴질째
그속에 피리부는 어린애
어적게 캐캐하고 약을 내쌈으며 죽던어린애
물결우로 배타고가드시 쭝기 쭝기 지나간다
머리푼어미를 본둥 만둥

(165)

그는 긔가 앗득하야 애애! 애애?하고부르며
피리소리를 싸라 천방지방 작고 내 다라난다
나무극에 치마 자락이 산산히 째짐도모르고서

몇십리나왓는지 맥이진하여 쌍에 썩구러질째
아해는 그래도 본체만체 손을 나팔 나팔 거리고 작고 간다
『애애?너는 어미도 이젓늬?』할째
아하 그제야보니 어린애팔에는국다란 쇠사슬이 통팅 감기엇고
피리분다던 그소리도 惡魔의 채찍에 살이터지는 소리

엇다
또 쇠사슬쥔이는 어느敎會堂 壁畵인물갓고
그는 이두려운광경에 피를토하며 다시 찐구러지며울다

꿈을 깨고난뒤에도 마치 생시가태서
울면서 죽은송장을 가슴에안고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고

(166)

아하, 일체는 모다 가버렷다
그의 周圍에는 永山이 천년만년 녹을것갓지안는永山이
쌋고 쌋고 또 쌋고
그리고 어미니에게서 아해를쌔앗고 게집에게서 사내를 쌔앗고
또 父母를 고향을 문명을 모다 쌔앗고서
이제 한낫남은 그목숨까지 쌔아스려 졸누는 듯
추워라 세상이 이러케춥던가
깨긋할사록 정직할사록 나약할사록 이러케 춥어야하던가?

어린애 죽은지 사흘만이라 그는
송장을 안고 해를 써리며 다니는 그청년을차저

그가 방속에서 어렷과 수군거릴째
마당을 모르게 두세네번 거닐며

(167)

『아버지여 이선물까지 드듸고 긔운잇게 나가소서!』
빌엇다

그리고서 초승달도 재넘는
이한밤중에 寂滅의 이한밤중에
시구문밧 공동묘지를 차저 이러케
아모도 모르는 장사를 이냄이엇다!

그째뒤짜라 나오는 더벙머리 청년이
자최업시죽은 이어린애 아버지엇다! 밤낫색시찻어 다니는-----

청년은 그째 색시의 出嫁를듯고 失望하여 서울에 올나온뒤
목숨을 세상위해 바치는일에 분주하면서도
사랑하는 그의 행색을 늘 살피엿다
그래서 자긔가 새세상을가지고 나올째까지

그때까지만 세상맨밋바닥을 할터가면서라도
몸을 뜻을 깨긋히 굿세게 가저달나고 合掌하며빌엇다
그리다가 어린애 죽은 일 알고
사흘동안을 밤마다 그집문간에가 울다 그래서
오늘 밤 장식을 보고
水鐵里에 몸을 숨겻다가
이가치 다라나와 어린애죽엄을 다시 파 안고서
그뒤를 싸름이다 어미뒤를 분주히 싸름이다
아 두쿵쿵거리는 地靈을 울니며 닷는발자최여! 어다로 가는가?

五

새벽이 장안만호를 가르타고잇다
北白岳에서 압南山까지 娼년가치 네가달쑥버린 서울이
가을밤 깁흔새벽에 목마를 타고눕고잇다
총독부청년회관 대한문 경복궁대궐안 종각모퉁이 남대문 교회당 진고개 배오개

(169)

우둑썃둑 울니민 돌집 기와집 양납집 초가집
공그리도길 돌다리길 오솔길
길게 싸각 싸각 가위질하는 밤엿장사 삿갓우에도
달보낸 초승새벽이 독갑이쎄가치 우둑허니 서잇다
서울은 잠드럿다 부처님 가치 곱다라케도 잠드렷다
이속에 엇지 高利貸金業者 阿片쟁이 또하로밤에 사내를 열도 더 적셔내는 색주가잡년이 잇슬줄알냐
강하고 악하고 울고 웃고 그런소린들 잇스랴
아, 도금칠한 서울이여
몃천년을 이달빗에 잠겻고 또 이대로 몃만년을 잠기려는가

삼십만시민이 어머니품에 안긴것가치 이러케 고요히 잠드렷슬째
밤은 棺속가치 모든일에 눈감고 어둠속에 묵겻슬째

(170)

진고개 高臺에 半落靑天한 듯 地軸에썃리박고 길게웃뚝션
불란서 天主敎堂 쏘족탑을 향해

불시에 엇던그림자 하나 분주히 분주히 내다라옴이여!
밤하늘은 깜짝놀나 푸드득썬다

山岳가튼 집채여 巨人가튼 伽藍이여
九百羅漢을 監禁하엿든가 길게도빼친 집채여
絃琴소리 울녓던들 九十九坊 阿房宮이라안햇스리
『루-벤쓰』이 昇天하는 그림과 가치 금시에
그 白堊의 집채로 十二使徒 쒸여나와
도금칠한 화상과 포도다램이를 안고서
놉흔 쏘족탑 鍾樓에 올너안저
『默示錄의 네騎士여
審判할째 되엿나이다』하고 삼십만시민을향해

(171)

헐갑으로 靈魂競賣를 또 부를듯 그리다가 내종에는 모다
하늘로 하늘로 昇天하여버릴 듯
이를보던 그 그림자는 狂亂하며 압마당까지 달녀오더니
威嚴에 壓視를마든것가치 먼---하고 웃쑥선다
天堂가는 鍾소리 또한번 陰風에 울닌다

그는 女子엇섯다 그는 색시엇섯다
색시는 이제는 마즈막이 일렷슴을 깨달엇다
그래서 嬰兒의 屍體를 뭇고는
서울안 제일놉흔 집을차저 이리로왓슴이다
제일 위엄만고 키가크고세상에가장 젠체하는
그는 문지방에 와 서더니
천길도 더되는 집채를 물끄럼히 바라보다가
두팔도 圓을지어 두어번 휙 휙 둘느며 呪文외우는 시늉을한다

(172)

『예루살넴』聖殿에 복수의 불고치 보내는 듯
그소리마치『죽는자는 반다시 하늘의 심판을 밧지안을 수업다고!
흥! 그러커든 몬저 산사람부터 심판하라지 응 응?
오, 하느님이여 죄악의세상과 죄악의 都府에 심판의문불을 내려줍소서!』하는듯

색시의눈압헤는 이런것이보인다-----
쪼기여난몸이 세상에 복수한다고

인간의, 서울의 구비구비를 쌍그리 도라다니며
더운입김을 사람마다 門깐마다 확확쌔려너코는
슬픈노래부르며 밤거리를 패어다니다가
무정한세상을 조소나하려고
『敵을가리여라』하듯 너무 어리석어 싸홈써리도안되는 서울을 조소나하려고 이사회를 呪咀나하려고

(173)

南山솔밧헤 목을매고 종로보신각에허리걸치고 弼雲臺 쏙대기에 두발언고서
일시에『나보아라!』하며 공중에 몸을날처
쇠사슬에 달닌 목이 열자 수무자 느러지게
그래서션지피가 목구멍으로 내 배틀째
삼십만 가가 호호에 고루 고루 지즈며
자긔의고기 울울이 西部 東部 南村 北村에모다 쌔려진다
그리고 마즈막 숨쓴어질째 우후후!소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로 다라다니며
새벽마다 세상인간의 잠을깨처노으리 쑴마다 불난리를 주어 놀내노으려하는 듯, 그리다가
그는 무엇을 깨다랏는지

몸을 푸드득 날치더니
돌기둥에 부서저라 쪼츠며 목노아 운다

(174)

그소리 새벽하늘에 잠못죽은 靑孀과부의 우름가치구슬 푸게들녓다

마을서는산 송아지를 산제에 밧친다더니
어린갓난애를 이녀인은 인간의 제사로 밧처엇는가?

六

그때 氣를일고 애끗나게 우는 女人압헤
무쇠탈쓴것가튼 壯漢하나 웃둑나타난다 그는 청년이엇다
『여보?』 잉경을 울니는것가튼 그소리
女人은깜작놀나며 치어다보앗다 모든 것이 이세상일 갓지안엇다
壯漢은 아모말업시 안고 왓던 보잭이를 女人압헤 탁내려놋는다
女人은 겁결에 그르쥐여보앗다 그는 앗가무더논 어린

애송장이엇다!

『비러먹을자식! 어랜애고기까지 먹고십던가 융융융』 하며 失神한사람갓치 이를바드득간다

(175)

두눈으로는 불고치 흐르며

『나를 처다봐요 나를 처다봐요!』銅羅가튼 그소리 또 펴진다

『악마 악마 어미까지 대려가자고 올치 올치!』

『나를 몰나? 나를몰느오』

『엥 무엇이 무엇이!』

『넷날 일본에서맛나든 당신을 못이저 못이저하든 ……』

『무엇이? 나를안다고! 하 하 하 하 내옵바인가 하 하 하』狂人가치 헷소리만친다

男子는 참다 못하는드시 몸을굽혀 女人을안으며

『나를보오 엥 나를 봐요!』

『……!』

『……?』

『앗! 에그머니 당신이……』

『내요 내요! 내요!』

『앗참용세하세요용서하세요네?!　내본마음으로시집간 것은아니니』

『용서? 참오랫동안 피차에 괴로웠소』

『아―』

둘은 서로안은채 아모말업시 오랫동안 눈물흘녓다 그 눈물이 가슴속까지 파고파고돌앗다

두雌雄의 頻死된 白鳥가치 쓰거운 쓰거운 抱擁을 길이 길이 하면서

七

동이 터오른다

먼 동이 北漢山山映樓를 쑴길가치 히멀금하게 비체며 차츰 차츰터 오른다-

서울장안의 온갖 생명을 춤추게 하느라고 저먼동이

인간들도 世界의 饗宴에 나갈 채림을하게하느라저새벽이

(177)

둘의 눈압헤는
사다리가 보인다 쌍우에쑤리박은 기다란 사다리가
사다리아래에는 고기가보인다 엉뎅이살점 너분다리살점 두 개골오장륙부가 屠殺場고깐가치 쑥느러저
몃萬개 몃千萬斤이 우굴우굴 싸여저서 끌코잇다
그우에 이고기를밋발로 하고구름에벗친 사다리가 보인다
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聖스러운 마음에눌니어
『아하, 사다리가 보이노나
넷날의력사 넷날의문명을 드리고션 사다리가우리의過去, 朝鮮의過去를드딘
하늘 한끗으로 버티여선 것이 보인다』

『동무여! 새벽이밝어온다』
새세계로 새인간으로 잇끄려올니는저사다리드디고서

(178)

하늘로 오르자 저무는 새벽하늘로 오르자!

『몃만년을 두고 몃천만인류들이 경영하던일이

몃억 몃천만의 생령을히생하면서 까지꾸미던일이
이제 이르럿단다 昇天하는 사다리 밟고저리로오르자!

어대서『만세!』하는 우렁찬소리 들닌다
청년은『거룩한사랑을 쌍이쌔아서 안가는 그런곳을 갑시다』
색시는『부억간까지 비체주는 太陽잇는곳을 싸라갑시다』

긴세월이 흘넛다---習地野---그날밤---마을저녁---앗가시구문밧
천추만세에 사실을국다란 쓸날로싹여둘 모든過去가

두 깁붐엣더는 몸이

(179)

天主敎堂高臺에서 하늘을바라 포도도 흔들때
옷자락은 全世界에 信號를보내드시
넙펄 넙펄 거린다-----
그소리 온하늘과 쌍우에 고요히 고요히 드러찬다

- [끗] -